***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16일 토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2.16특집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탄신 60돌

21세기 태양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2002)년 2월 16일

격동하는 21세기와 더불어 위대한 선군시대가 만민의 경탄 속에 도도히 굽이쳐 흐르는 장엄한 역사적 시기에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다함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신절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2월의 명절을 맞으며 태양같이 환하고 열정에 넘치신 자애로운 영상을 절절한 그리움 속에 우러르는 우리들의 마음은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끝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겨레와 인류의 한없는 축복 속에 탄신절을 맞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일치한 축원과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은 우리 민족을 창창한 미래에로 이끌어 가실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의 출현이었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의 빛나는 계승완성을 확고히 기약한 역사적인 일대 경사였습니다.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 오르시어 주체위업을 향도해 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장장 60성상에 걸치는 성스러운 혁명역사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정력적인 활동으로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에 불멸할 대업적을 이룩하신 천재적인 사상이론가, 걸출한 정치가, 희세의 영장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연대기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향도이념으로 발전풍부화하시고 독창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 탁월한 업적을 쌓으심으로써 백두에서 시작된 태양의 위업은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사소한 우여곡절과 탈선도 없이 주체의 항로따라 줄기차게 전진해 올 수 있었으며 사상으로 역사를 개척하고 사상으로 백전백승하는 **김정일**사상제일의 위대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수호하시며 당과 국가, 군대를 수령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수령의 역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는 수령영생의 역사적 위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하신 것은 고결한 충정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총대철학, 선군정치방식을 제시하시고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위대한 선군영도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단행하시어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주체적인 무력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펼쳐 놓으신 장군형의 위대한 정치가이십니다.

더욱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군위력의 분화구를 터쳐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사상과 군력의 힘으로 제압하시어 20세기 최대의 정치군사적 기적을 이룩하시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빛내이시며 사회주의 수호전의 위대한 승리의 영마루에서 강성대국건설에로 비약하는 기적의 새 시대를 단신으로 창조하

→ (2면으로 이어집니다)

2.16 특집

1 21세기 태양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2 21세기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2 주체91년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10대 맹약
3 **김정일**총비서탄생 60돐경축 사진특집
4 위인의 거룩한 자국
5 백두광명성 찬가
5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 것이다
6 민족의 영광,인류공동의 대경사
6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노작

7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3)

세기와 더불어 **9** 2장 2절 환멸

한국민족민주전선

11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시킨 부시행정부의 죄악백서
12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14일

조선중앙통신

13 주체 91년 2월 14일 **14** ≪악의축≫론을 해부함 – 로동신문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5 공화국 창건 50돐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사업

아리랑뉴스

16 통일연대 4차 범국민 행동의 날
16 여성계150인, 한미정상회담에 평화요구
16 전쟁반대, 부시반대 평화메일 보내기
17 카톨릭평화지기, 평화를 위한 십자가의 길 행사
17 ≪한반도에 평화를≫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17 대종단 부시 미대통령에 서한
18 조선일보의 유별난 부시 짝사랑
18 부시, 한중일 순방에서 ≪왕따≫될 듯

운동강좌 **19**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3)

조국통일3대헌장 **20** 연방국가창립방안(1) **광고** **19** 6.15주간 34호

21세기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60돌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21세기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이남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민족최대의 명절, 인류공동의 경사로 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60돌을 맞이하며 우리 청년전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역사의 2월 16일은 우리 민족이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대행운의 날이며 온 인류가 무궁토록 찬양할 주체시대의 영원한 명절입니다.

만고절세의 빨찌산장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 조국전쟁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수십여성상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대수령에 대한 가장 고결한 충정으로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시며 주체연호와 태양절, **김일성**헌법을 제정하시어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것은 태양민족, 주체시대와 더불어 영원할 대위훈입니다.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사회주의이론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며 우리 시대의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시어 주체위업과 전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완성할 수 있는 향도이념을 뚜렷이 밝혀주시었습니다.

실력가형 영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인류최강의 정치조직으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온 사회를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리시어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최상의 수준에서 이룩된 주체조선의 새로운 전성기를 창조하시었습니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에 둘도 없는 시련의 시기를 최강의 선군정치로 맞받아나가시며 미제국주의와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업이야말로 백두산장군다운 무비의 담력과 특출한 실력의 결실이며 온 세상을 탄복시킨 기적적 위훈입니다.

장군님의 걸출한 영도가 있었기에 조선민중은 강성대국의 웅대한 전망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우리 힘 당할 자 세상에 없다≫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되었으며 온 나라에는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만세의 환호성이 차넘치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이념하에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밝혀주시었으며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을 제압하고 모든 통일애국역량이 대단합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 국면을 창출하시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원로이신 **김정일**장군님이 계시기에 오늘 주체조선의 국제적 지위와 자주적 존엄은 하늘에 닿고 있으며 인류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재건운동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실력, 거룩한 풍모를 체현하시고 조국청사와 인류역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시고 계시는 우리 시대의 걸출한 위인,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김정일장군님의 거대한 업적에 필승의 신심과 무한한 용기를 얻고 있는 우리 민중은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조국통일이 이룩될 것을 심장으로 확신하며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투사들은 장군님께서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 조러모스크바선언으로 열어주신 전례없이 유리한 국면을 십분 활용하며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로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전술로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청년주체주의자대오와 변혁운동대오의 주체사상화와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각계민중의 숭배열기가 활화산처럼 분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여 올해를 자주, 민주,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승리의 해로 빛내일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 계시기에 21세기는 통일강성대국의 세기로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은 겨레와 인류의 최대의 행복이며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청년전사들과 애국민중의 일치한 염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원히 젊어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이남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 편집인

주체 91(2002)년 2월 16일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10대 맹약

주체 91년

청년주체주의자동지들에게 보내는 통보(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55호)

1.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통일혁명 사상과 전략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이를 변혁운동대오에 널리 전파한다.

2.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백두산3대장군의 사상과 영도, 풍모의 위대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각계민중의 숭배열기가 온 남녘땅에 대하로 굽이치게 한다.

3.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우리 대오와 변혁운동대오의 주체사상화와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주체역량강화의 비약적 국면을 창출한다.

4.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모범적인 활동으로 한총련내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키며 나아가 전체 청년학생운동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한다.

5.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청년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의 연대연합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활동가들을 대거 육성하여 기층민중속으로 투신시킨다.

6.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를 확대강화하며 올해 반드시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를 건설한다.

7.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민족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며 양대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한다.

8.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대선에서 진보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이룩하는 한편 개혁세력과 연대하여 6.15공동선언지지후보를 당선시킨다.

9.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미군철거의 전략적 구호와 전술적 단계의 요구를 묘술있게 배합하여 반미투쟁을 대중운동의 수준으로 상승발전시킨다.

10.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6.15공동선언의 기치하에 민족자주통일대행진을 전개함으로써 2002년을 6.15공동선언실현의 해로 빛내인다.

위대한 장군님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이남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 편집인

→ (1면에서 계속됩니다)

신 것은 인류사에 유례없는 정치신화입니다. 필승의 자신감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남의 봉화따라 4대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는 **김정일**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총진군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북의 장엄한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조선에서만이 펼쳐질 수 있는 영웅서사시적 화폭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21세기의 통일대강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펼쳐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진두에서 향도하심으로써 통일위업실현에서는 분단사에 처음있는 전환적 국면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계적 판도에서 사회주의위업, 자주위업이 정의의 위업으로 공인되고 실현되어 나가는 자주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국제적 권위와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에 의해 이루어진 자랑찬 결실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상과 세련된 영도, 숭고한 덕망과 불멸의 업적으로 만민을 매혹시키고 세계를 진감시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역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성인이시며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백두영봉에 광명성 솟아 빛나던 그 연대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경모해오는 우리 민중은 변함없는 숭배심을 안고 장군님을 더욱 열렬히 숭앙하며 성스러운 투쟁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수, 민족의 자주사상을 숭배하고 따르는 각성된 각계민중의 애국적 투쟁에 의하여 오늘 남녘에서 숭미와 사대, 남북대결과 분열의 구도가 반미자주와 연북화해, 단합의 구도로 급전환되어 자주, 민주, 통일운동이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되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불굴의 투지를 안고 2월의 대명절을 맞는 이 시각 우리들은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민족민주운동에서 새로운 승리를 안아 올 드높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민전과 변혁운동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각계민중을 **김일성**, **김정일**위인제일, 주체사상제일로 정신무장시키기 위한 대민홍보활동을 활성화하여 위인숭배, 사상숭배를 삶의 좌우명으로, 투쟁의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정세가 긴장할수록 민족자주, 통일조국아리랑을 힘차게 부르면서 내외호전세력들의 반북,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며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민족적 경사가 겹치는 올해를 역사에 가장 빛나는 한해로 장식하고야 말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높이 모시어 민족과 조국통일의 전도는 창창하며 우리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일치한 소망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21세기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60돌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김정일총비서탄생 60돐경축 사진특집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총비서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을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 깊게 맞이하고 있다.
주체의 선군령도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총비서의 혁명활동을 보여 주는 사진의 일부를 년대순으로 소개한다.

유년시기
부모님들인 **김일성**주석과 김정숙녀사와 함께 계시는 유년시기의 **김정일**총비서.
총비서께서는 1942년 **2** 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였다.

대학시절
민청초급간부를 격려하시는 대학시절의 **김정일**총비서(사진 가운데)=1963.10
총비서께서는 대학시절의 1962년 **1** 월 15일 론문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본성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개시
작가, 예술인들을 지도하시는 **김정일**총비서=1972.9
총비서께서는 1964년 4월 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들어가시고 지도원, 과장을 거쳐 70년부터 73년까지 부부장, 부장으로 사업을 보시고 73년 **9** 월에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추대되시였다.

주체위업의 계승자
김정일총비서(당시 비서)께서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추대되신것을 환영하는 힘흥시군중대회=1974년
1974년 2월 13일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5** 기 제 **8** 차전원회의에서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추대되시였다

주체위업의 전면적계승 및 발전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결론하시는 **김정일**총비서=1974.2
총비서께서는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할데 대한 강령을 내놓으시였다.

주체위업의 전면적계승 및 발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6** 기 제 **1** 차전원회의에 참석하신 **김정일**총비서=1980.10
총비서께서는 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추대되시였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사업을 지도하시는 **김정일**총비서(당시 비서)=1991.12.25
대회전날인 24일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였다.

21세기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60돐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인민군창건 60돐기념 열병식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고 전체 열병부대들에게 축하를 보내시는 **김정일**최고사령관=1992.4.25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발언하시였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인민군 제214군부대를 방문하신 **김정일**총비서=1995.1.1
총비서께서는 《다박솔중대》 라고 불리우는 이 군부대방문을 통하여 《선군정치》 의 시작을 결심하시였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인민군 제564공군대련합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신 **김정일**총비서=1997.10.10
총비서로 추대되신후 첫 군부대방문.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는 **김정일**총비서=1999.1.1
공화국에서는 과학중시정책을 내놓고 있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 참가자들을 축하하시는 **김정일**총비서=2000.10.10
총비서께서는 금달 16일에 탄생 60돐을 맞이하신다.

위인의 거룩한 자국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60성상은 민중을 쉼없이 찾으시고 이끄시어 이북을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부강하며 자위로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게 하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영도자의 역사로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광복 후부터 지난해까지 찾으신 현지지도 단위수

· 단위수: 1만 1천 326개
· 일수: 5천 781일
· 거리: 42만 3천 307km(105만 8천 260여리)

이것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220번 다녀오신 것과 같고 지구를 근 11바퀴나 도신 것과 같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34(1945)년 11월부터 주체53(1964)년 3월까지 찾으신 현지지도 단위수

· 단위수: 2천 870개
· 일수: 1천 567일
· 거리: 6만 4천 719km(16만 1천 790여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40년간 찾으신 현지지도 단위수

· 단위수: 8천 456개
· 일수: 4천 214일
· 거리: 35만 8천 588km(89만 6천 470여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84(1995)년부터 주체90(2001)년까지 7년간 찾으신 현지지도 단위수

· 단위수: 1천 300개(그중 무력부문 814개)
· 일수: 577일
· 거리: 11만 6천694km(29만 1천 730여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진행하신 외국방문

· 차수: 6차
· 거리: 6만 8천446km(17만 1천 110여리)

역사적 사실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를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노고를 바치시었는가를 뜨겁게 절감하게 하고 있다.

21세기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60돌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백두광명성찬가

1992. 2. 16. **김일성**

백두산 마루에 정일봉 솟아 있고
소백수 푸른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돌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백두산정 정일봉 白頭山頂 正日峯
소백수하 벽계류 小白水河 碧溪流
광명성탄 오십주 光明星誕 五十週
개찬문무 충효비 皆贊文武 忠孝備
만민칭송 제동심 萬民稱頌 齊同心
환호성고 진천지 歡呼聲高 震天地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 것이다

새 세기 21세기 두번째 해에 들어와 맞이하는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진보적 인류는 세계공동의 대경사로 여기면서 커다란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 있다.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은 민족의 태양이실 뿐만 아니라 인류자주위업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사상이론에서 비범하시고 영도에서 걸출하시며 덕망에서 특출하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 오늘 진보적 인류는 21세기가 **김정일**세기로 찬연히 빛날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하면서 그분을 높이 우러러 경모하며 칭송하고 있다.

아래에 세계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 학계, 출판보도계 인사들의 칭송자료 일부를 간추려 소개한다.

≪새 세기 21세기는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세기로 빛날 것이다.≫(모스크바종합대학 철학박사 일렉산드르 드로반)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이것은 숭고한 사상과 불멸의 세련된 영도력과 고매한 덕성으로 하여 민중들 속에서 허물 수 없는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 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걸출한 영도자에 대하여 세인이 칭송하여 부르는 고상한 존칭이다. 인류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처럼 만민이 미래를 의탁하고 신뢰한 영도자는 없다. 그러나 오늘 인류가 끝없는 환희에 넘쳐 우러르며 칭송하는 위대한 스승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김정일**동지이시다.≫(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치)

≪21세기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신 것은 페루와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커다란 행운이다.

오늘 조선은 **김정일**동지를 최고영도자로 높이 모시고 있기에 세계 자주위업실현의 모범으로, 사회주의를 위한 인류의 투쟁의 횃불로 되고 있다. 페루사회당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대륙의 모든 진보적 정당들은 자주위업을 실현하는 길은 곧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를 받들고 인류해방의 영원횃불인 사회주의 조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 할 것이다.≫(페루사회당 총서기 루이스 마터오 무뇨스)

≪**김정일**동지께서 시대와 역사,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말하자면 끝이 없다.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김정일**동지께 인류는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

김정일동지는 조선민중과 진보적 인류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다.≫(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사쥐 우말라토바)

≪그분의 영도사는 비범한 예지로 주체사상을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시키고 빛내어 오신 걸출한 사상이론가의 역사이다.

그분의 활동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선대수령의 사상의 진수를 옹호고수하는 과정이었고 시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창조적 사색의 과정이었다.≫(인도신문 ≪인디안 타임스≫)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신 **김정일**각하의 사상의 향기와 견인력은 그 독창성, 진리성과 함께 실천적으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는 현실성에 있다.≫(이탈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쟝카를로 알리아 발로리)

≪오늘 조선민중과 세계 진보적 인류는 민족과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김정일**각하를 ≪21세기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실 탁월한 영도자≫로 높이 칭송하여 따르고 있다.≫(캄보디아 내무서기 탄시나)

≪행성의 사회주의신봉자들과 진보적 인류는 **김정일**영도자를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위대한 수령으로 우러르고 있다.

…… 그분의 영도밑에 동방에 거연히 솟아 있는 조선의 현실은 자주화된 새 세기의 미래를 낙관하게 된다.≫(멕시코 신문 ≪콤바티엔테≫)

≪지금 세계 민중들 속에서는 거창한 혁명실천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진보적 인류를 세계 평화위업수행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신 **김정일**영도자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다함없는 신뢰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 나오고 있으며 그분을 ≪21세기의 태양≫,≪대국의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일본 오키나와대학 지역연구소 소장 다카라 유세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시대의 완벽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을 내놓으시어 세계정치사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그분께서는 수령의 혁명위업계승완성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었으며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전당과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시고 공화국이 사상과 정치의 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도록 하시었다.

세계에는 수많은 정치가들이 있지만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실력을 지니신 **김정일**동지와 같으신 노련한 정치원로, 탁월한 정치가는 없다.≫(인도 혁명적 사회주의당 중앙원회 서기 아바니 로이)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인류가 우러르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조선의 사회주의위업 뿐아니라 21세기 세계 진보적 인류의 자주위업의 전도는 **김정일**동지의 안녕에 달려 있다.

그분의 안녕은 조선인민과 함께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 인민들이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한결같은 염원이다.≫(네팔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사하나 프라단)

≪아 **김정일**
당신은 제국주의를 쳐부순다
아 위대하여라 그 이름 **김정일**
세계혁명의 원로이신 당신께
존경과 흠모의 마음 담아 인사드리네
아 위대한 그 이름 **김정일**
당신의 사상과 고상한 풍모는
강성대국의 새 세기를 펼쳐 주거니
조선의 번영을 축원합니다
당신의 안녕을 삼가 축원합니다 ≫
(리비아 사회인사 잇즈 마흐쥬브 아마드 야딤)

21세기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60돌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민족의 영광, 인류공동의 대경사

봄이 태동하는 2월이다. 백두산의 정일봉을 축으로 한 천리 백두대지엔 서리꽃이 하얗게 피고 남햇가엔 봄향기가 실려온다.

2월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행운의 달, 영광의 달이다. 주체 31(1942)년 2월16일, 이 역사의 날에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것이다.

돌이켜 보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은 백두의 억센 기상과 맑고 푸른 정기를 타고난 천출위인이 시대적 요청과 겨레의 열원에 화답하여 향도의 태양으로 솟아오른 장엄한 해돋이였다.

그것은 분명 민족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 민족만대의 부강발전과 융성번영을 담보하는 민족의 대통운, 대영광이였다. 그것은 또한 자주시대의 개화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기약하는 인류공동의 대경사였다.

사실 조종의 산, 백두산의 해돋이로 밝아온 영광의 2.16이 있어 자주민족의 시조이시고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 민족자주위업이 빛나게 승계완성되어가고 있고 우리 민족과 전인류의 무궁번영을 약속하는 찬란한 **김정일**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역사의 새 시대, **김정일**시대는 비운의 민족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성업을 완성하는 민족적 경사의 시대이며 3천리 조국강토위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성대국을 건설하고 **김일성**민족의 위용을 만방에 높이 선양할 민족부흥의 최성기이며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의지에 따라 세계가 개조되고 인류의 자주위업이 개화발전하게 될 거창한 변혁의 시대이다.

오늘 우리 민족과 행성의 진보적 인류가 새 세기에 들어와 두번째로 맞는 2월의 민족최대, 인류공동의 대명절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고 뜻깊게 기념하는 참뜻이 여기에 있다. 자연도 2월의 명절을 경축하고 있다. 백두대지를 아름답게 단장한 하얀 서리꽃바다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대자연의 축복이라면 남햇가를 물들인 봄향기바다는 꿈결에도 잊지 못하는 백두산장군을 그리는 남녘민중의 붉은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경사로운 2월의 대명절에 즈음하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백두산으로, 평양으로 달리는 북향의 뜨거운 마음안고 만민의 축복 속에 탄신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올리고 있다.

민족의 운명, 그 흥망성쇠는 영수에게 달려 있다. 탁월한 영수의 영도밑에 민족자주위업이 전진하고 승리하며 자애로운 영수의 품속에서 민중의 참된 삶이 꽃펴난다.

김정일장군님은 사상이론의 영재이시고 영도의 거장이시며 인덕의 최고화신이시다. 그분께서는 천재적 예지와 뛰어난 실력, 거창한 영도업적과 숭고한 덕망으로 민족의 최고뇌수, 민족대단결의 유일중심,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자주위업의 최고영수로서의 권위를 확보하셨다. 사상과 영도, 인품과 덕망도 천하제일이신 장군님의 권위는 통일의 원수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겨레에게는 필승의 신념을 주는 절대적 권위이며 장군님의 덕망은 전민족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흐름에 합류시키는 위력한 구심력, 위대한 인덕이다.

오늘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우리 겨레는 문무재덕을 겸전하신 장군님의 천출위인상과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력에서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내다보고 있으며 부강번영할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어 통일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고 민족의 장래는 밝고 양양하다는 확신은 이제 우리 민중의 가슴 속에 억년 드놀지 않는 바위처럼 굳게 자리잡았다.

우리는 반세기여에 걸치는 오랜 투쟁경험과 생활체험을 통해 자주에의 진로도, 민주에의 출로도, 통일에의 활로도 영명하신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민족민주운동에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다는 것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터득하고 절감했다.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장군님 영도를 변함없이 따르는 길이 곧 분단의 아픔을 통일의 환희로 바꾸는 길이며 온 겨레가 부강번영하는 강성대국에서 자자손손 복락하는 길이다. 영광찬 2월의 대명절을 맞는 이 시각 전체 한민전 성원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가슴가슴은 장군님 영도따라 민족자주통일위업을 완성하고 일대 민족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 진군길에서 자신이 지닌 책무를 다할 새로운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정세와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여 자기 힘으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장군님의 통일경륜을 지침으로 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갈 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은 승리의 기치이시며 우리의 모든 행복의 상징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온 겨레의 간절한 소망이며 통일강성대국건설의 근본담보이다.

경사로운 2월의 대명절에 즈음하여 남녘의 모든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열화와 같은 충성의 마음 한데 모아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옵기를 삼가 축원하는 바이다.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

민족과 인류공동의 대축제인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는 7천만 겨레의 마음은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로 쏠리고 있으며 그분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충정으로 불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외세에 의해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다바치시어 조국과 민족 앞에 빛나는 업적을 쌓으신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시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시며 드팀없는 의지이시다.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으로 여기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명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주석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변함없이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해 주심으로써 통일의 억센 기둥을 세워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 3대헌장을 밝히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주석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유산과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성업을 앞당겨 성취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8(1999)년 4월 18일 발표하신 명저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지배와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연대연합을 강화할데 관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셨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민족단합의 대헌장이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남, 북, 해외의 온 민족이 가장 공고한 기초위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놓고 굳게 단합할 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고 있는 민족단합의 기치이며 지침이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위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을 역사적 이정표를 받아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광복 59돌을 계기로 남, 북, 해외의 온 민족의 통일의지를 모아 통일협상인 대민족회의를 판문점에서 소집하도록 하시었으며 여기서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연방제통일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확정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인 사변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지난 2000년 6월에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마련되었다.

6.15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반목과 대결로 점철된 반세기여의 분단사를 끝장내고 화합과 단합의 길, 민족자주통일의 창창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염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민족구성원들을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길에 하나같이 묶어세워 나가기 위해 애국애족의 정치, 광폭정치를 펴고 계신다.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의 실현은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올바른 정치에 대한 요구가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인덕정치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 그분의 민중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애국애족의 정치는 온 민족을 한품에 안아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이끌어 주고 있다.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인덕정치는 온 민족의 가슴 속에 조국통일열풍을 몰아 왔으며 그분께서 가리키시는 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온 민족이 힘있게 나가는 거대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장군님의 광폭정치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상을 신봉하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건 관계없이 넓으신 한품에 다 안아 조국통일의 길에 세워주시는 정치이다. 장군님께서는 비록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걷던 사람이라고 하여도 오늘날에 와서 통일성업에 한몸 바치려 한다면 넓은 아량으로 대하시며 민족대단결의 대오에 세워주신다.

지금 남, 북, 해외의 전체 7천만 겨레는 **김정일**장군님의 한없이 넓고 뜨거운 애국애족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에 매혹되어 통일성업의 한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가 있기에 우리 겨레는 내외분열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며 자주통일의 대진군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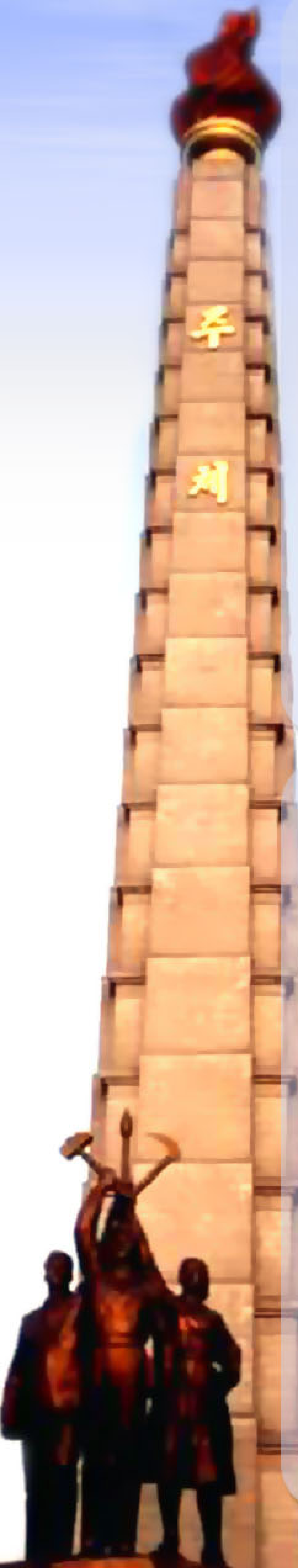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것은 우리 민족만이 받아안을 수 있는 최상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높이 받들어 나가는 길에 조국통일도, 민족의 창창한 미래도 있다.

전국민은 민족의 운명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분께서 가리키시는 조국통일성업실현을 위해 힘있게 매진하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3)

주체86(1997)년 6월 19일



자체의 정치적 역량과 함께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기의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없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갈 수 없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든 힘을 기울여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담보하는 자체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비상히 커지고 세계적으로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지 않고서는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할 수 없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인민은 주체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나라 혁명의 요구와 구체적 현실에 맞게 자체의 투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며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자기 인민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키고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적극 동원한다면 능히 과학기술발전의 높은 영마루에 올라설 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해 나갈 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체의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하는 것을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근본요구로 내세우고 새사회 건설의 첫 시기부터 푼전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불굴의 투쟁을 벌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경제적 군사적 토대를 쌓았다. 오늘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혁명의 근본이익과 나라의 존엄을 확고히 수호해 나가고 있는 것은 위력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건설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과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 자주적인 국가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나라의 안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데서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의식의 발현이다. 혁명하는 당은 언제나 인민들 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적극 벌여 그들이 자기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랑의 감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각오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작고 뒤떨어진 나라들, 지난날 큰 나라들의 지배와 간섭을 많이 받아오고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뿌리 깊이 남아 있는 나라들에서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여야 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자기민족의 우수성을 체득한 데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발현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는 민족의 우수성은 인종적 특성과는 인연이 없으며 어느 특정한 민족만이 지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다 자체의 우수성이 있으며 그것을 살리고 내세우려는 지향과 요구가 있다. 혁명하는 당은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옳게 보고 그것을 적극 내세워야 인민들 속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고 내세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족유산을 홀시하고 줴버리는 허무주의는 민족적 우수성의 개화발전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이다. 민족의 우수성을 살려나가자면 민족유산을 귀중히 여기는 입장을 가져야 하며 민족의 우수성을 부정하는 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극복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을 귀중히 여긴다는 간판 밑에 지난날의 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는 복고주의 역시 민족의 우수성을 옳게 살려나갈 수 없게 하는 유해로운 경향이다. 복고주의를 허용하게 되면 착취계급의 요구와 취미가 반영되어 있고 시대의 발전에 역행하는 낡고 뒤떨어진 것들이 되살아나 사회주의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우수성을 살려나가는 데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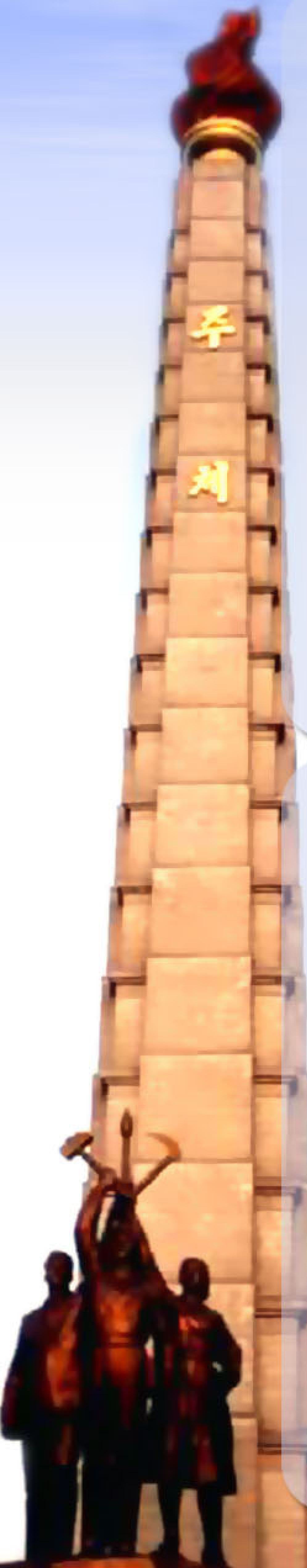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민족의 우수성을 옳게 살려나가려면 민족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다 같이 배격하고 민족적 입장과 계급적 입장, 역사주의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옳게 결합시켜 낡은 것 사회주의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내세우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유산을 옳게 살리는 것과 함께 민족의 새로운 우수성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한다. 유산으로 내려오는 민족의 우수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우수성들을 창조해 나갈 때 민족의 우수성은 더욱 개화발전하게 되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서 그것이 노는 역할이 커지게 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족의 새로운 우수성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인민들 속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

민족의 우수성은 위대한 수령의 영도 밑에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지며 높이 발양된다. 민족의 우수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어 위대한 민족으로 되었으며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우수한 민족성을 지니게 되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르고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으로 칭송하고 있다.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충성과 효성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오랜 역사적 과정에 실지 체험을 통하여 신념과 의지, 양심과 도덕으로 굳어진 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효심은 **김일성**민족의 훌륭한 민족성의 최고표현으로 되고 있으며 **김일성**민족의 모든 우수성의 근본바탕을 이루고 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는 높은 단결정신,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적 신념,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혁명적 낙관주의,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비롯한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 우수성은 위대한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원천을 두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높이 발현되고 있다. 우리는 수령을 충효일심으로 받드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품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인민들이 대대손손 자기수령, 자기당에 충성과 효성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인민들이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곧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충성과 효성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오랜 역사적 과정에 실지 체험을 통하여 신념과 의지, 양심과 도덕으로 굳어진 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효심은 김일성민족의 훌륭한 민족성의 최고표현으로 되고 있으며 김일성민족의 모든 우수성의 근본바탕을 이루고 있다.



살하고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노골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현 시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인민들이 다시금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없애야 한다.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 본성이며 국제질서가 아무리 변하여도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은 달라질 수 없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을 가려보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기대를 거는 것 보다 어리석고 위험한 것은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아 가기 위한 약탈과 예속의 올가미이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졌던 나라와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똑똑히 보고 언제나 반제자주적 입장을 견결히 지키며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의 자그마한 요소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공포는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의 다른 표현이다. 제국주의는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며 자기 시대를 다 산 역사의 퇴물이다. 제국주의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반제투쟁을 포기한다면 언제가도 제국주의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의 취약성을 꿰뚫어 보고 허장성세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용감히 맞서야 하며 그들의 반동적 공세를 혁명적 공세로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하고 교활한 민족말살정책과 그것을 합리화하는 반동이론들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한다. 민족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정책은 오늘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 강도적 궤변 밑에 새로운 형태를 띠고 펼쳐지고 있다. 매개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조건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세계의 일체화란 있을 수 없다. 사회가 발전하고 민족들 사이의 연계와 교류가 밀접해 짐에 따라 민족들의 생활에서 공통성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들의 독자적이며 개성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며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 것을 꾸며낸 것은 전 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만들며 모든 민족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동화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 간판을 걸고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의 위험성을 똑똑히 보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른 민족을 말살하고 동화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대외적으로 뿐 아니라 국내의 소수민족과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지난 시기 가장 악랄한 식민지통치와 민족말살정책으로 조선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오늘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 권리를 억누르고 그들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며 재일조선인들을 저들에게 동화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당과 국가는 해외에 사는 자기민족성원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민족동화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그것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역사에 의하여 파산 당한 인종론, 세계주의를 비롯한 반동이론들은 오늘 여러 가지 형태로 각색되고 변형되어 사람들의 민족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본성을 가리우고 정당화하는 온갖 반동적 사상조류들과 궤변들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어야 한다. 자기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하여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반역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분쇄할 수도 없고 민족의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도 없다. 이것은 우리 조국의 남쪽 땅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역대 반동통치배들의 사대매국행위로 민족성이 심히 유린되어 온 남조선에서는 지금 당국자들의 반민족적인 국제화 세계화 소동으로 하여 민족의 넋과 미풍양속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국제화 세계화 소동은 민족적인 모든 것을 말살하고 외세에 나라와 민족을 통채로 넘겨주는 대가로 저들의 권력과 안락을 유지하려는 전대미문의 매국배족행위이다. 국제화 세계화의 간판 아래 실시되는 굴욕적인 개방정책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식 일본식 서양식이 쓸어들어 남조선에서는 정치방식으로부터 말과 글, 생활풍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생활이 미국화, 일본화, 서양화되고 있으며 외세가 판을 치고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를 끊어버리고 자주적 발전의 길을 열어나가려면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팔아먹으며 온갖 민족적 불행과 재난을 가져오는 반역자들을 철저히 쓸어버려야 한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서로 지지성원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여야만 매개나라들에서 민족적 독립과 부강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으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블록불가담나라들,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성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국제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자주권과 평등, 정의와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하며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적극 발전시켜 다같이 부강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 자주, 평화, 친선은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당의 대외정책이념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자주와 평등, 평화와 친선,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연계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공정한 국제적 관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국제적 임무와 시대적 사명을 다 해 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고수하고 구현해 나가는 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이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의 원칙, 민족자주의 원칙을 변함없이 확고히 견지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신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끝)

1권 제2장

잊을수 없는 화전

1. 화성의숙
2. 환멸
3. 타도제국주의동맹
4. 새로운 활무대를 그리는 마음
5. 독립군의 녀걸 리관린

2. 환 멸

나는 인차 화성의숙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두어주일가량 공부해보니 학과목들도 별로 어려운 것이 없었다.

의숙학생들이 제일 골치아파하는 과목은 수학이였다. 어느날 수업시간에 여럿이 지명을 받고도 풀지 못한 길다란 사칙문제를 내가 별로 어렵지 않게 풀어냈더니 그들은 몹시 신기해하였다. 여러해동아 정규교육에서 떨어져나와 독립군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였으므로 그럴수밖에 없었다. 그후부터 나는 수학때문에 단련을 받았다. 머리를 쓰기 싫어하는 몇몇 수염쟁이청년들이 수학숙제를 할 때마다 찾아와서는 성화를 먹이였다. 그 대가라고 할지 그들은 나에게 여러가지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들가운데는 들을 만한 것이 많았다.

강한 육체적 부담을 요구하는 군사훈련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는 서로 마음속 깊은 사연까지도 서슴없이 헤쳐보이는 다정한 벗들이 되었다. 애숭이신입생으로서 나이많은 사람들의 짐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겼던 내가 학습과 교련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네것내것이 따로없이 학우들과 잘 섭쓸려돌아갔기 때문에 그들도 년령의 층하를 두지 않고 나를 가까이 대해주었다.

그만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은 환경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얼마 안되어 화성의숙의 교육은 점차 나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세운 학교이고 아버지의 연고자들이 주관하고 운영하는 학교이지만 나는 여기서 전 세대가 남긴 사상과 방법에서의 낡은 잔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의 력사가 수십년 되지만 의숙의 교육에는 그것을 집대성하고 비판적으로 분석총화하는 리론이 없었다.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은 수십년동안이나 민족주의운동을 지도해오면서도 그 운동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론문이나 교과서 하나 똑똑히 만들어놓지 않았다. 화성의숙에 찾아오는 독립군의 거두들이나 애국지사들도 그저 막연하게 연탁을 두드리며 독립하자고만 부르짖었다. 혁명력량은 어떻게 편성하고 대중은 어떻게 동원시키며 독립운동대렬의 통일단결은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도 없었고 무장투쟁의 교범이나 전술같은 것도 변변치 못하였다. 조선력사과목은 왕조사본위로 엮어져있었고 세계혁명사도 부르죠아혁명사가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

화성의숙에서 배워주는 것은 민족주의사상과 구한국 냄새가 나는 낡은 군사훈련뿐이였다.

민족주의사상에 깊이 물젖은 선생들이 비록 반일과 민족적 독립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투쟁방법은 뒤떨어진 것이였다. 학교당국은 전투경험이 있는 독립군대원들을 데려다가 무훈담을 자주 들려주었다. 그런데 그 무훈담을 통해서 고취하는 것은 안중근, 장인환, 강우규, 리재명, 라석주와 같은 렬사들이 적용하였던 개인테로의 방법이였다.

학생들은 독립군의 간부들을 키워내는 군관학교라는 것이 말뿐이지 실탄사격에 쓸 탄알마저 없어 늘 나무총이나 가지고 훈련해서야 무슨 수로 왜놈들을 내쫓겠는가고 하면서 불평을 터놓군 하였다.

일제총독에게 폭탄을 던졌던 강우규렬사

한번은 어떤 학생이 언제면 우리도 신식총을 다루어볼 수 있는가고 군사교관에게 물은적이 있었다. 교관은 몹시 난처해하면서 지금 독립군간부들이 군자금을 해결해가지고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무기를 사올 계획으로 맹활동을 하고 있으니 인차 해결될 것이라고 얼버무리였다. 총 몇자루를 얻지 못해 이렇게 몇만리밖에 있는 서양나라들을 쳐다보는 형편이였다.

나는 군사훈련시간에 아래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릴때마다 이렇게 해서 왜놈들을 타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난날 수천수만명을 헤아리는 전봉준의 동학군은 우금치라는 고개에서 천명의 일본군을 당해내지 못해 지리멸렬되었다. 그때 일본군은 신식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동학군은 100명이 한놈씩만 제껴도 공주를 치고 서울까지 내처 달려갈수 있는 유리한 형세였는데 무장이 약하고 군세가 약하여 참패하고 말았다.

의병의 무장도 동학군보다는 별로 나은 것이 없었다. 의병들에게도 얼마간 신식총이 있었지만 그 량은 한정되어있었고 대부분의 성원들은 도창무기가 아니면 화승대를 사용하였다. 의병투쟁을 화승대와 38식보총의 싸움이라고 력사가들이 말하는 것도 이런 리유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총탄 한방울 쏠 때마다 매번 손으로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안되는 화승총으로 분당 10발이상씩 쏠수 있는 38식보총을 제압하려면 얼마나 비참한 인내를 체험해야 하며 얼마나 간고한 싸움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화승대의 성능이 아직 의병들만 아는 비밀로 남아있을 때까지는 일본군대가 이 화승대의 총성만 듣고도 겁에 질려 달아났는데 성능을 안 다음부터는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였다니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량반도덕과 계률에 밝은 유생출신의 의병들은 전투중에도 대관을 쓰고 거치장스러운 도포차림으로 싸움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의병들을 일본군대는 대포와 기관총으로 짓뭉개놓았다. 일본의 군력이 그때보다는 어방없이 강대해졌는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훈련이나 해가지고 과연 땅크, 대포, 군함, 비행기과 같은 현대적 무기와 중장비들을 계렬식으로 만들어내는 제국주의 강군을 꺼구러뜨릴수 있겠는가.

나를 제일 실망케 한 것은 화성의숙의 사상적 락후성이었다.

학교당국이 민족주의 외통길로만 나가면서 다른 사상은 다 경계하다나니 학생들도 자연히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화성의숙에는 왕조정치에 미련을 가지거나 미국식민주주의에 환상을 가지는 청년들도 있었다.

그런 경향은 세계혁명사과목의 학과토론시간에 제일 우심하게 나타났다. 선생의 지명을 받은 학생들은 강의시간에 취급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해 옮기면서 자본주의발전에 대하여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들의 그 교조적인 학습태도에 나는 불만을 금할 수 없었다. 화성의숙의 정치과목수업에서는 조선독립과 조선의 민중이라는 산 현실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었다. 그저 교과서나 교수요강에 제시된 내용들을 기계적으로 배워주고 받아낼 뿐이였다.

토론을 실천문제, 조선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를 놓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나는 방금 토론을 한 학생에게 우리 나라에서는 독립후 어떤 사회를 세워야 하겠는가고 물어보았다.

질문을 받은 학생은 자본주의길로 나가야 한다고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우리 민족이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다른 나라들이 자본주의길로 나갈 때 우리 나라에서는 봉건통치배들이 음풍영월로 허송세월하였기 때문인데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자본주의사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였다. 어떤 학생들은 봉건왕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사회를 세워야 한다거나 근로인민이 주인된 사회를 세워야 한다

휘발하기슭과 화전시가전경

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없었다. 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할 때인데 이런 시대사조를 전혀 념두에 두는 것 같지도 않았다. 독립후 어떤 나라를 세우는가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볼일이지 독립도 되기 전에 자본주의냐, 왕조복귀냐 하는 것은 싱거운 일이라고 하면서 팔짱을 지르고 앉아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나는 그런 토론을 들으면서 화성의숙에서 실시하는 민족주의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더욱 통절하게 느끼였다. 봉건왕조를 되살리겠다는 것도 그렇고 자본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참다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나라는 구라파나라들처럼 부르죠아혁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낡은 봉건통치기구를 그대로 되살려도 안된다고 말하였다.

자본주의나 봉건사회는 다같이 돈많은 놈들이 근로대

상해림시정부청사

빠리강화회의에 보낸 독립청원서

중을 착취하여 호강하는 사회이다, 독립된후 조선에 이런 불공평한 사회를 세울 수는 없다, 기계문명의 발전만 보고 자본주의의 병집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봉건왕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도 당치않은 소리이다, 나라를 외세에 팔아먹은 왕조정치에 그 누가 미련을 품겠는가, 도대체 왕들이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백성들의 등껍질을 벗기고 바른 말을 하는 충신들을 목자르고 귀양보낸 것밖에 더 있는가, 우리는 조선을 독립시킨후 조국땅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세워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나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만민평등의 부강한 사회를 세우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최창걸이도 수업이 끝난 다음 내 손을 꽉 그러잡고 좋은 토론을 했다고 하면서 나를 지지해주었다. 내가 공산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공산주의사상을 멋있게 들이먹이더라고 하면서 몹시 통쾌해하였다.

화성의숙의 제한성은 민족주의운동자체의 제한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화성의숙을 통하여 민족주의운동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와서는 독립군들도 맥을 못추고 세력다툼만 하였다. 1920년대 전반기에 국내와 압록강연안에서 종종 벌이던 것과 같은 실제적인 군사활동은 거의나 하지 않고 관할구역에 틀고앉아 군자금이나 거두며 돌아다니는 형편이였다.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거국적인 정부≫라고 자칭하던 상해 림시정부의 인사들도 ≪자치파≫니, ≪독립파≫니 하는 파벌을 이루고 서로 치렬한 감투싸움을 벌이였다. 림시정부의 수뇌자리가 번번이 교체된 것도 그때문이었다. 지어는 한해에 두번씩 내각개조놀음이 벌어진 때도 있었다.

림시정부의 요인들은 빠리강화회의때 ≪조선독립청원서≫가 미국을 비롯한 협상국대표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회의의정에 상정되지조차도 못했던 사실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민족의 존엄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비굴하기 짝이 없는 ≪청원≫놀음을 계속하였다.

심지어 ≪미국회의원동양시찰단≫이라는 것이 상해를 거쳐 서울로 들어왔을 때에는 국내에 있는 친미사대주의자들을 부추겨 미국회의원들에게 인삼과 은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값비싼 물건들을 섬겨바치게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런 림시정부조차도 자금난으로 1920년대중엽에 와서는 그 허울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나중

빠리 강화회의 대표단

김시우

에는 장개석의 중경정부에 얹혀다니면서 구차스럽게 지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치적 동요성이 많은 자산계급출신의 민족운동지도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겁을 먹은 나머지 원쑤들에게 투항변절하고 말았다. 그들은 ≪애국지사≫로부터 일제의 앞잡이로, 민족개량주의자로 굴러떨어져 민족해방운동을 저애하는 길에 들어섰다.

일제는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조선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원한다면 정치적으로 일본의 통치를 반대하여 나설 것이 아니라 그에 협력하여야 하며 일본의 식민지통치밑에서의 자치권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며 문화를 향상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민족성을 개량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이 설교를 통채로 받아문 것이 바로 자산계급출신의 민족운동지도자들이였다. 그들은 ≪민족개량≫과 ≪실력양성≫의 보자기를 쓰고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떠들었고 각 개인의 ≪자아수양≫을 떠들었으며 ≪계급협조≫와 ≪대동단결≫, ≪민족자치≫를 떠들었다. 이와 같은 개량주의의 바람이 화성의숙에도 불어왔다.

김시우네 집 웃방은 항상 나와 정치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찾아오는 청년들로 흥성거리였다. 내가 김시우의 서재에 있는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열심히 탐독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화제는 자연히 정치문제에 쏠리였다.

나는 무송에 있을 적에도 ≪레닌의 일생기≫나 ≪사회주의대의≫와 같은 책을 몇권 읽었지만 화전에 와서는 그보다 많은 책을 읽었다. 이전에는 그저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쳤다면 화성의숙에 온 다음부터는 책을 읽으면서도 항상 고전에 나오는 혁명의 원리들을 조선의 현실과 결부시켜 생각해보게 되었다.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알고싶은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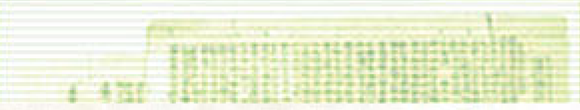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를 찾아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을 실현하겠는가, 조국을 광복하는 투쟁에서는 어떤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고 어떤 로정을 거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하는가, …나한테는 이 모든 것이 미지수였다.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손에 책을 잡으면 비슷한 대목이 나올 때까지 근기있게 파고들었다. 특히 식민지에 대한 문제가 언급된 대목은 열번스무번 곱씹어 읽었다. 그러다나니 동무들이 찾아와도 화제거리가 많았다.

우리는 새 사조에 대한 이야기와 쏘련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날에는 학생들이 저마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계를 눈앞에 그리며 좀처럼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왕조복귀나 자본주의나 민족개조를 주장하는 리론보다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미난다고 하였다. 그날그날을 되는대로 보내던 학생들속에서는 점차 새것에 대한 동경심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학교에 나가서는 레닌에 대한 이야기나 10월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학교당국이 그것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점차 화성의숙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김시우의 집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시킨 부시행정부의 죄악백서 (1)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2002)년 2월 13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와 자주통일의 이정표가 세워지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대전환이 일어났다.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대결에서 화해에로, 냉전에서 평화에로, 분단에서 통일에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것은 50여년 분단사에 일찍이 없었던 우리 민족사의 쾌거였으며 지구촌의 공동경사였다.

그러나 1년전 1월 20일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6.15공동선언의 이행에는 제동이 걸리고 북미대화와 함께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한반도에는 냉전의 기류가 다시금 밀려들게 되었다. 그 주범인 부시는 워싱턴에서 ≪악의 축≫이라는 독설로 불집을 만들어놓고 전쟁화약내를 풍기며 서울에 기여든다고 한다.

우리 민중은 이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여 부시를 ≪악의 왕초≫로 규정하고 그의 머리위에 철추를 내릴 반미반부시투쟁에 과감히 일떠서고 있다.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온 민중, 온 겨레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부시의 서울행각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앞길에 차단봉을 가로질러온 그의 집권 1년간의 죄악상을 고발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북미관계를 뒤집어놓은 죄악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분단사에 자주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 민족의 통일좌표인 6.15공동선언이 이행되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이 땅에 언론들이 쓴 것처럼 ≪미국은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유보해왔으며≫(조선일보, 2001년 6월 8일), ≪미국은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유보해왔으며 부시행정부는 6.15공동선언을 무산시키려는 저의를 드러내놓기 시작했다.≫(말, 2001년 7월)

내신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까밝히고 있다.

≪부시는 한반도에서 6.15공동선언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적을 만들고 위기의식을 높임으로써 방위산업계 친구들에게 약속한 신종무기판매를 합리화하고 부유한 공화당측근들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할수 있기

때문이다.≫(부산일보, 2001년 5월 3일)

≪부시팀은 6.15공동선언이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러쪽에 치우치는 통일로 될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자기 세력권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한겨레, 2001년 6월 12일)

≪그러므로 부시행정부는 출범하자부터 북미관계를 차단하는 것으로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부시행정부는 북의 외무성대변인이 지난해 10월 24일자 성명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권을 인계받기 바쁘게 모든 것을 뒤집어엎었다.≫(민족21, 2002년 1월)

그것이 바로 3대 뒤집기작전인 ≪북미정상회담뒤집기≫, ≪북미기본합의문뒤집기≫, ≪북미협상뒤집기≫작전들였다. 이 3대 뒤집기작전은 우리 민족의 통일대사를 망치기 위한 것이였다.

첫째, 북미정상회담뒤집기

북미사이에는 2000년 10월 이북특사의 방미와 올브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의 방북에 뒤이어 클린턴의 평양방문이 예견되고 이를 계기로 평양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는 북의 미사일뿐 아니라 한반도평화체제와 북미간의 완전한 관계개선문제를 일괄타결하기로 합의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6.15공동선언이 마련되어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에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정상화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에서는 55년동안 지속되어오던 냉전체제가 일소에 해체되고 우리 민족앞에는 평화와 통일의 대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클린턴의 방북은 돌연 취소되었다. 그의 방북행을 가로막아나선 것이 바로 부시와 그의 패거리들이였다.

부시는 지난해 12월 19일 클린턴과 정권인계인수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북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북미사이의 최대현안인 이북미사일문제해결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강요하였으며 이보다 하루앞서 상원 원내총무와 하원의장 등 11명의 공화당의원패거리들은 클린턴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무분별한 이북과의 협상타결은 없는 것만 못하다고 줴치면서 방북취소를 강박해 나섰다.≫(동아일보, 2000년 12월 19일, 12월 29일, 12월 30일)

부시와 그 일당의 북미정상회담뒤집기작전으로 북미관계는 전면해결의 고지에서 적대적인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6.15공동선언으로 화해국면에로 들어서게 되었던 남북관계도 경색국면에로 환원하게 되었다.

둘째, 북미기본합의문뒤집기

≪북의 핵문제는 1994년에 영변핵위기를 계기로 1년반 동안의 공방끝에 체결된 동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로 완결되었다.≫(말, 2001년 7월)

≪그런데 출범하기 전부터 제네바합의는 이북의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떠들어온 부시는≫(동아일보 2001년 1월 18일)

≪제네바합의는 이북의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떠들어온 부시는 백악관에 들어앉자 북미기본합의문의 전면적 재검토문제까지 끄집어내어 그것을 백지화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뉴코리아타임스, 2001년 6월 23일)

≪부시행정부는 북에 건설해주기로 한 원자력발전소의 완공단계에 가서 북의 핵사찰을 하기로 된 것을 당장해야 하며 경수로에서도 플루토늄을 추출할수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로 바꿔야한다고 들고나왔다. 이것은 내외여론이 지적한 것처럼 제네바합의를 뒤집기 위한 억지였다.≫(동아일보, 2001년 1월 18일)

셋째, 북미협상뒤집기

≪북은 미국에서 새 정권이 출범하자 북미관계발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클린턴정부때의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시는 백악관에 입성하자 이북과의 관계를 전면재검토할 것이라는 폭언을 연발하면서≫(경향신문, 2001년 3월 15일)

≪그러나 부시는 백악관에 입성하자 이북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폭언을 연발하면서 기존의 관계개선지향적인 북미협상틀거리를 전면 뒤집어엎었다. 내외여론은 부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신의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클린턴행정부때와는 다를 것임을 밝힌 사실을 놓고 이것은 선임행정부와는 달리 힘의 과시를 통한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강경정책에로의 선회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한겨레, 2001년 3월 9일)

≪파월국무장관은 백악관에 발을 들여놓기 3일전인 지난해 1월 17일에 ≪우리는 이북과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북과의 어떤 협상도 그 이행여부를 우리가 반드시 검증, 감시할수 있어야 한다. 이북이 미사일개발과 수출을 중단하고 재래식, 비재래식위협을 모두 제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측에 아무 것도 주지않을 것이라는 독설을 뱉어놓은바 있다.≫(조선일보, 2001년 1월 19일)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팀들은 앞을 다투어 북과 대화재개를 위해서는 대북감시 및 검증체제가 필요하다느니(파월국무장관), 이북과의 협상의제에는 핵이나 미사일외에 재래식무기도 포함되어야 한다느니(라이스백악관안보보좌관)하면서 강경론을 폈다.≫(한겨레 2001년 12월 7일)

≪지난해 6월 6일 근 5개월간의 정책검토를 걸쳐 밝혀진 부시의 대북정책성명은 이미 강경파들에 의해 거론되어온 핵과 미사일, 재래식무기문제를 묶어서 협상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 검증체제하에서만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며 이 세가지 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정치경제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한겨레 2001년 6월 8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대화거부성명이고 북미관계개선 부정성명이였다. 워싱턴의 한반도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성명은 북과의 대화기피로 남북간의 대화를 막고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차단하는 것으로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막기 위한 하나의 요식성명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를 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한겨레 2001년 6월 8일)

2. 남북화합을 차단해온 죄악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하나로 이어져가던 민족의 혈맥이 다시 단절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남북간의 화해와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교류와 협력이 무산되고 왕래와 상봉이 두절되게 되었다. 부시행정부는 미국과 한국간의 수직관계를 이용하여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사사건건 훼방을 놓아왔다.≫(동아일보, 2001년 8월 2일)

첫째 남북대화 가로막기

≪지난해 3월 7일 부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신은 이북을 잘못 보고 있다. 이북은 믿을수 없다.≫(뉴욕타임스, 2001년 3월 8일)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문제에서는 불투명한 점이 많다. 클린턴정권은 6년간 속아왔다. 우리 정권은 속지 않을 것이다.≫(신동아, 2001년 4월)

≪우리 정권은 속지 않을 것이다는 위압적인 말로 김대중을 면박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사전협의없이 6.15공동선언에 서명한데 대해 강하게 추궁하면서 고작 54밖에 안되는 부시가 당년 77세라는 김대중을 보고 ≪이 사람≫, ≪이 양반≫하며 하대하고 경멸하였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진전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조절하며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을 정치군사협상은 물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까지 포함하여 관계마다 미국의 승인밑에 할 것을 강박했다.≫(뉴코리아타임스, 2001년 5월 5일)

이것은 남북관계개선에로 나아가는 남북대화에 발목을 잡아 매놓기 위한 것이였다.

남북간의 대화에 제동을 걸고 나선 부시행정부는 9.11사건을 계기로 남한당국을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게 하고 남쪽에 미국의 기동무력을 투입함으로써 남북간의 장관급회담을 단절시켜버렸다. 한국의 언론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시행정부의 훼방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11월에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남측이 취한 비상경계태세가 쟁점이 돼 아무런 결실도 없이 결렬되였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남북대화의 발목을 다시 잡은 것이다.≫(민족21, 2002년 1월)

≪이번에 한미연합군에 비상경계령이 발동되고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게 된 것 때문에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이 난항을 겪었고 결국 결렬되었다. 이번 비상경계령발동사실에서 드러난 것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책동의 주범이 부시정권이라는 사실이다.≫(민, 2002년 1월)

둘째, 남북협력 가로막기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민족내부문제이지 대양건너 미국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는 미국은 상호주의와 검증을 원칙으로 북을 반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중단시키려하는데 한국이 이북에 퍼주고 앞서나가면 공조가 되느냐.≫(동아일보, 2001년 1월 27일)고 강박해나섰다.

≪부시행정부는 남이 북에 전기를 주면 핵사찰카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된다, 386컴퓨터도 여러대 연결하면 군사용으로 전용될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화학비료는 재래식 폭약을 생산할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식량은 군량으로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뒤따라야한다고 하면서 모든 협력에 돌아가며 ≪노≫딱지를 붙여 발목을 잡았다.≫(동아일보, 2001년 1월 20일, 민, 2001년 8월)

부시행정부는 지난 1월 2일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관리규정을 수정해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나라들에 대한 고성능 컴퓨터수출은 완화하는 반면 북을 비롯한 테러지원국의 딱지를 붙여놓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컴퓨터반출금지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부시행정부는 이회창을 비롯한 한국의 친미보수패거리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대북퍼주기론을 외쳐대게 했다.

이들은 지금 군전력증강5개년계획기간에 무려 30조원의 혈세를 동족대결용 무기구입비로, 미군산복합체에 퍼넣기로한 진짜 퍼주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남북공조보다 한미공조를 우선시하는 부시의 사냥개노릇을 하고 있다.

셋째, 남북왕래 가로막기

≪부시행정부는 남북간의 왕래와 혈육간의 상봉까지 가로막아 나섰다.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명산이고 경의선은 우리 민족의 대동맥이다. 그런데 부시같은 대양건너 깡패들이 나서서 금강산관광은 관광료가 군사비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가로막아 나서고 경의선복원은 지뢰를 해체해야하기 때문에 북의 전차(탱크)들이 쳐나올수 있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고 남북간의 접촉과 왕래는 민족주의기류를 확산시킬수 있다고 보면서 달가와하지 않고 있다.≫(산케이신문 2001년 2월 2일, 민 2001년 1월)

부시행정부가 이처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아나서며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이전의 대결원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한반도를 냉전의 기류속에 몰아놓고 무기시장을 확대하여 심각한 불황에 처한 미국경제를 살려내며 한반도를 군사적 패권주의의 시험장으로 써먹으려는데 있다. 미국을 위해 우리 민족의 화해와 대화를 가로막아 나서고 혈육간의 왕래와 상봉까지 차단하고 있는 부시야말로 민족배타주의가 골수에까지 밴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내일 계속됩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14일

2월의 명절을 맞아 경축행사
≪태양회≫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일을 맞으며 부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양회≫에서 여러가지 행사와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말에 결성된 태양절 및 2.16경축준비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지난 12일 시내 모처에서 토론회를 갖고 ≪21세기와 **김정일**영도자≫, ≪**김정일**영도자님은 통일의 태양≫, ≪영도자님의 선군정치는 민족수호정치≫ 등 제목으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통일방략따라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자≫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편 ≪태양회≫에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위대성과 관련된 녹화테이프를 주민들 속에 공급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2.16기념연회
이북주재 인도네시아대사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에 즈음해 이북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가 13일 저녁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이북 최고인민회의 최태복의장과 백남순외무상, 이광근무역상 등이 초대됐습니다.

연회에서는 인도네시아 대사와 최태복의장이 연설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는 연설에서 이북 민중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데 언급하고 이것은 **김정일**원수각하의 현명한 영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일**원수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와 수카르노대통령께서 몸소 마련해주신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빛내이는데 커다란 업적을 쌓으셨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가 계속 공고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했으며 뜻깊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메가와티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해 잔을 들었습니다.

이회창방미행각 밝힐 것 촉구
민주당대변인

민주당 이낙연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방미직후 부시를 비롯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강경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회창이 부시행정부의 고위당국자들과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대변인은 이회창이 미국 고위당직자들과의 연대에서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기조를 주문했거나 동의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외교와 한반도평화에 대한 무감각과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회창은 미국방문시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전략적 상호주의를 운운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어줄 것과 북의 대량살상무기개발 등을 거론하며 대북강경정책을 계속 견지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회창은 또 자신이 집권하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보장하는 등 미국의 어떤 요구도 다 받아들이겠다면서 자신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이회창은 또한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지지하며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미국 고위당국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망언은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부추겨 이 땅에 기어이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려는 용납못할 반민족적인 대죄가 아닐수 없습니다.

친미사대매국노인 이회창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우리 겨레는 돌이킬수 없는 커다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회창 사대매국행위규탄
재러조선공민중앙협회

재러조선공민중앙협회 채종만회장이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의 사대매국행위를 규탄해 7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6.15공동선언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그로 인한 모든 악결과는 통일을 막아나선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방해책동에 의해 조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회창이 미국의 비위를 발라맞추기 위해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해 나섰는가 하면 미군의 영구주둔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적극 두둔해 나선데 대해 비난하고 반통일세력의 우두머리 이회창의 망언을 단죄규탄했습니다.

그는 호전분자 이회창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6.15공동선언을 한사코 막아나서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자는 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그 어떠한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반통일행위를 걸음마다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14일

부쉬의 망발은 취소되여야 한다
핀란드조선협회대표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핀란드조선협회대표단 단장인 에스꼬 꼬스끼넨은 11일 평양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미국대통령이 ≪년두교서≫라는데서 조선을 터무니없이 헐뜯은데 대해 지금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쉬의 발언은 세계평화를 해치고 조선의 통일에 제동을 거는 폭언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헐뜯는 부쉬의 망발이 시급히 취소되여야 하며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허리를 둘로 갈라 놓은 콩크리트장벽을 당장 해체하여야 하며 남조선강점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우리 핀란드인민을 비롯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부쉬의 망발에 대한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더 높여 나갈것이며 앞으로도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리회창의 매국행위를 규탄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채종만 회장이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의 사대매국행위를 규탄하여 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리회창이 미국의 비위를 발라 맞추면서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해 나섰는가 하면 미군의 영구주둔과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적극 두둔해 나선데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반통일세력의 우두머리인 리회창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6.15공동선언을 한사코 막아 나서고 있는 리유는 미국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자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외세의 간섭이 없는 통일만이 7천만 민족의 살길이며 반통일세력들의 존재는 오래지 않아 끝장날것이다.

우리는 리회창과 ≪한나라당≫의 그 어떠한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또한 리회창과 ≪한나라당≫의 반통일행위를 걸음마다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나갈것이다.

워싱톤 포스트지 비난
조선중앙통신 론평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부쉬의 ≪악의 축≫폭언을 반대배격하는 국제여론을 무마시키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 있다.

이 신문은 최근호 사설에서 부쉬의 ≪악의 축≫평가는 ≪진실≫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세계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압적주장을 하였다.

이것은 정치권력에 아부하는 사이비언론으로서의 ≪워싱톤 포스트≫지의 검은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낸것으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언론의 근본 자세이다.

세계적인 초미의 문제들에 관여한다고 하는 ≪워싱톤 포스트≫지가 과연 ≪악의 축≫론의 반동적본질을 간파할수 없을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단말인가.

주권국가들을 함부로 걸고 드는 이 신문의 불순한 태도는 미국의 정치적리해관계를 반영한것으로서 ≪반테로전쟁≫을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려는 부쉬행정부의 전쟁책동을 부추기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오늘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힘≫으로 제압하고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침략전쟁목적을 추구하는 ≪악의 축≫론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워싱톤 포스트≫지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무모한 시도를 버려야 하며 다른 주권국가들을 대하는데서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2.16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한 경축행사들이 최근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였다.

로씨야에서는 경축집회가, 방글라데슈, 인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우즈베끼스딴, 메히꼬에서는 조선사진전시회 및 영화감상회가, 뻬루, 우크라이나, 꼴롬비아에서는 강연회가 있었다.

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령도업적이 높이 칭송되였으며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표시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로씨야협회 부위원장은 경축집회에서 한 보고에서 로씨야인민은 형제적인 조선인민과 함께 현대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시대 세계정치사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으며 로조친선관계발전에 크게 기여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공화국은 당당한 국제적권위를 지니게 되였다.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보루로 전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참으로 **김정일**각하는 최고령도자로 모신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뻬루사회혁명당 총비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걸출한 세계정치원로이시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사회주의조선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사회주의보루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빛날것이다.

진정 **김정일**동지는 천출명장이시며 희세의 위인이시다.

주체사상연구소조 련합토론회
우간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연구우간다전국위원회의 주최로 1일 캄팔라에서 그이의 위대성에 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의 련합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인 2월 16일을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그이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업적에 대한 위대한 칭송이며 그이의 령도밑에 21세기에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인류의 한결 같은 마음의 표시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모시고 있기에 인류는 21세기에 자주화된 세계를 반드시 건설할것이라고 말하였다.

2.16기념 뷸레찐특간호
뻬루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1일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에서 ≪**김정일**총비서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김정일**담력≫이라는 제목의 뷸레찐특간호를 발행하였다.

뷸레찐은 **김정일**장군은 주체사상과 조선로동당의 혁명전통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민족의 일대 전성기를 마련하신 영명한 지도자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 겸손성과 소박성은 **김정일**장군의 천품이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그이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 나가고 있는것이다.

뷸레찐은 또한 력사는 **김정일**장군과 같이 담력이 큰 위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핵문제≫로 하여 전쟁발발이 오늘인가 래일인가 하는 시기에 그이께서는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 진 해변가에 새로 건설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 보시였으며 자신의 곁에 있어야 할 군사일군을 병치료를 받도록 떠밀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토록 기고만장하여 덤벼 드는 대적을 자신의 상대로도 여기지 않으시였다.

지금 그이께서는 조선을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며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웅대한 구상을 펼쳐 나가고 계신다.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김정일**, 그이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신다.

2.16경축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진행, 축포 발사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14일 태양의 성지 백두산밀영에서는 장엄한 축포가 터져 올랐다.

이날 소백수골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과 각계층 인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일편단심 충성 다할 신념과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이 선창하였다.

그는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 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며 장군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리로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만들며 총대로 주체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고 군민일치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더 잘 받들어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선창자는 미제호전광들이 우리에 대한 침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 내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불은 불로 다스리고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하는 우리 혁명무력의 립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백두대지에 려명이 밝아오는 시각 정일봉상공에 장쾌한 축포가 터져 올랐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차승수 위원장과 시인들은 즉흥시에서 정일봉상공에 터져 오른 축포는 백두령장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만민의 다함 없는 축원의 한마음을 담은 포성, 영광의 축포라고 강조하였다.

≪악의 축≫론을 해부함

로동신문 2월 14일

최근 미국대통령 부쉬가 들고 나온 ≪악의 축≫론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리로 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과 국제여론들이 부쉬의 ≪악의 축≫론의 부당성과 허황성을 비난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합류해 나서고 있다. 지어 미국내에서도 부쉬의 망발을 두고 반대론의가 분분하다. 부쉬가 귀구멍이 막혀 있지 않다면 내외의 비난의 목소리를 못 들을리 만무하다. 그러나 부쉬는 그것을 귀등으로 흘려 보내며 ≪악의 축≫론을 계속 제창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미공군기지에 군복차림으로 나타나 ≪악의 축≫론을 다시금 곱씹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부쉬가 ≪일반서신연설≫(국정연설)에서 우리의 ≪대량살륙무기의 개발보유≫를 운운하면서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나라와 이란, 이라크가 ≪미국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망발을 늘어 놓았다. 그는 이 세 나라를 념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미국을 위협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폭언하였다. 플로리다주의 미공군기지에서 한 부쉬의 망발은 ≪일반서신연설≫의 복사판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부쉬가 내외의 항의비난과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악의 축≫론을 올해 미국의 침략적대외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우려 하는 조건에서 그의 부당성, 허황성, 침략적성격과 위험성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시하고 론박하지 않을수 없다.

부쉬의 ≪악의 축≫론은 아무런 리론적근거와 자료적증거도 없는 독설이다.

이것은 부쉬가 백악관의 탁상머리에서 제나름대로 고안해 낸것이다. 그가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게 된 경위를 보자. 원래 부쉬의 두뇌진에서 작성한 ≪일반서신연설≫초안에는 이라크만이 문제시되여 있었다. 그런데 부쉬가 ≪일반서신연설≫초안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 나라와 이란을 찍어 넣고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던것이다. 부쉬는 우리 나라와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들≫이라고 ≪일반서신연설≫에 박아 넣었지만 그것을 리론적으로, 자료적으로 론증할만 한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못하였다.

보건대 부쉬는 론리적사고력과 식견이 없고 무식하며 리론적전개능력이 빈곤한 정객이 분명하다. 그가 대학시절에 머리가 아둔하여 겨우 락제를 면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에 제창한 ≪악의 축≫론이 어떤것이겠는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하기는 3점짜리 대통령이 만들어 낸것이 결함투성이의 오작품으로밖에 달리는 될수 없는것이다. 부쉬는 분명히 ≪악≫이 무엇이고 ≪축≫이 무슨 개념인지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악의 축≫이라는 자기 식의 괴이한 엉터리론리를 들고 나온것이다.

부쉬가 우리를 ≪악≫으로 규정한것은 거꾸로 된 론리이며 리치에 전혀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묘사한것도 허무맹랑한 소리이다. 우리 나라와 이라크, 이란은 그 어떤 동맹적성격의 구성체를 이루고 있지 않다. 우리 나라와 이란, 이라크는 리념상으로 보아도 그렇고 제도상으로 보아도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라크와 이란사이의 관계를 놓고 보아도 두 나라는 20세기 말엽에 있은 8년간의 전쟁이후 아직까지 국가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와 이란, 이라크사이에 그 어떤 축도 형성되여 있지 않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부쉬가 우리 나라와 이란, 이라크가 ≪악의 실체≫인듯이 묘사한것은 완전히 사실무근거하고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공리공담이다.

부쉬의 ≪악의 축≫론은 그의 무지의 표현이며 정치적문맹자의 잠꼬대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부쉬는 한 나라의 국가수반은 고사하고 일반정치인의 자질도 체모도 갖추지 못한 초라한 위인이며 한치의 앞도 내다볼줄 모르는 청맹과니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라면 식견도 학식도 있고 리론과 주견도 있어야 하며 말 한마디 하여도 무게가 있고 사람들이 납득할수 있는 설득력과 론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쉬는 무식하고 능력이 없다보니 ≪유일초대국≫의 국가수반의 직분과 체모에 어울리지 않게 아무 소리나 망탕하며 입에서 구렝이가 튀여 나오는지 도깨비가 튀여 나오는지도 모르고 무사분주히 혀끝을 놀려 대고 있다.

부쉬의 장끼는 깡패적, 불량배적기질이며 호전성이다. 사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부쉬가 대통령으로 되는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였다. 때문에 부쉬는 2000년 대통령선거때 간난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떳떳치 못하게 가까스로 대통령 벙거지를 썼다. 일이 이쯤 되였으면 부쉬는 응당 거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며 언행을 바로 하고 국가정치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그의 지난 1년간의 행적을 보면 ≪상처≫와 오유로 가득 차 있다.

지난해에 있은 미국력사상 류례 없는 ≪9.11사건≫으로 인한 대참변은 부쉬정권의 지나친 강권과 단독주의, 일방주의 정책의 필연적산물이였다.

새 세기에 들어 와 미국경제가 빈사지경에 처하고 있는것도 역시 부쉬정권의 경제운영무능력의 후과이다. 부쉬정권의 대외정책과 외교적수완을 우리와의 관계문제만 가지고 고찰하여 보아도 그것들이 얼마나 조폭하고 미숙한것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연설에서 주권국가들을 지명하여 침략위협을 가하고 특히 우리 나라를 걸고 들며 공공연히 전쟁폭언을 한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것은 부쉬야말로 극악한 전쟁광신자이며 불망나니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부쉬가 ≪악의 축≫론을 들고 나온 리면에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음흉한 목적과 타산이 깔려 있다.

부쉬는 ≪악의 축≫론으로 정치적인 선전적효과를 보려고 타산하였다.

올해 가을에 미국에서는 국회중간선거가 진행된다. 그런데 지금 부쉬팀은 ≪9.11사건≫, 경제적파국, 특대형엔론추문사건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집권여당인 공화당은 국회 상원에서 다수파의 지위를 민주당에 빼앗긴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쉬팀은 국회중간선거를 치르어야 한다. 이번 국회중간선거는 2004년 대통령선거의 향방과 국회상원의 지위를 결정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부쉬는 이번 국정연설에서 자기 팀의 강경고압적인 외교자세를 보여 줌으로써 민심을 낚아 국회중간선거의 분위기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성하려 하고 있다.

부쉬는 ≪악의 축≫론을 방편으로 군비확장정책을 강행하고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까놓고 말하면 부쉬는 군수독점체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백악관의 주인자리를 차지하였다. 부쉬가 미싸일방위체계창설에 극성을 부리는것은 군수독점체들의 리익실현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현 회계년도에 3,000억딸라선을 훨씬 릉가한 최대규모의 군사비지출을 하고 있는 부쉬정권은 새 회계년도에 무려 현 회계년도보다 480억딸라의 대폭적인 군사비증액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테로방지≫의 미명하에 미싸일방위체계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킬 립장이다.

이를 위한 구실을 마련하자니 ≪악의 축≫이라는 허구가 필요했던것이다. 부쉬는 ≪악의 축≫론을 내들고 군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미싸일방위체계개발을 다그치며 군수독점체들한테서 입은 ≪은혜≫를 갚으려 하고 있다.

부쉬가 ≪악의 축≫론을 들고 나온 리면에는 또한 거기에 포함된 나라들을 놀래워 기를 꺾어 놓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 들여 ≪반테로련합≫을 유지강화하고 ≪반테로전쟁≫을 지구적범위로 확대하며 거기에 끼우지 않는 나라들에 심리적압박감과 위협을 주자는 계책이 숨어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후 ≪반테로련합≫이 깨여 지고 이로 하여 저들의 ≪반테로≫전략이 파산될가봐 몹시 우려하고 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악의 축≫론을 내들고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반테로련합≫에 더욱 얽어 매고 ≪반테로≫전략을 계속 강행추진하여 저들에게 맞서는 나라들을 무쇠주먹으로 다스리려 하고 있다.

부쉬가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것은 우리 공화국을 21세기의 ≪주적≫으로 ≪반테로≫전략과 ≪십자군원정≫의 주요공격목표로 삼는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정면으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 온것으로 된다. 미국의 최고권력자가 직접 나서서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전쟁선언을 한것은 극히 엄중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그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데 이어 그리고 남조선행각을 앞두고 반공화국전쟁폭언을 거리낌없이 한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력사에 ≪평화의 해≫로 정해 진 전례는 있어도 ≪전쟁의 해≫로 규정된 전례는 없다. 미국의 력대 대통령들가운데서도 한해를 ≪전쟁의 해≫로 규정한 인물은 없다. 부쉬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것은 올해에 침략전쟁을 국가정책의 중심과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모든것을 지향시키겠다는 소리이다. 이러한 그가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락인한것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불길을 조선반도로 옮기려는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우리는 ≪일반서신연설≫에서 ≪악의 축≫론을 내든 부쉬가 며칠안으로 남조선을 행각하게 되는데 대하여 경계하지 않을수 없다.

20세기 50년대 초 전쟁상인 덜레스가 미국대통령특사의 자격으로 남조선을 행각하여 전쟁도발준비상태를 최종검증하였다는것은 력사에 기록되여 있다.

더욱 위험한것은 미군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전쟁명령권을 행사하는 최고집권자가 직접 현지에서 전쟁도발준비상태를 최종검증하게 되는것이다. 이른바 ≪악≫을 물리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부쉬의 남조선행각에 무엇이 뒤따를것인가 하는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지금 미제는 아프가니스탄의 타리반세력을 붕괴시키고는 ≪승리≫의 현훈증에 사로잡혀 기고만장하여 전쟁광기를 부리고 있다. 사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은 거인과 난쟁이와의 싸움이였다. 타리반정권은 합법적인 정권도 아니고 군사적힘이 보잘것 없는 정권이였다. 타리반은 하나의 정치세력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령토상으로나, 세력상으로나, 군사력규모와 수준으로 보나 하늘땅차이인 타리반세력을 첨단무기와 현대적군사작전원리와 전법을 다 동원하여 무려 약 60억딸라의 재정적손실을 보면서 꺼꾸러뜨리고는 범 잡은 포수마냥 기가 승하여 날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미국이 지금까지 무력간섭과 전쟁유희를 한 나라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정치적감각과 판단이 무디고 현실을 볼줄 모르는 부쉬호전세력은 우리에 대한 파악과 인식을 똑바로 가지려 하지 않을뿐아니라 조선전쟁의 후과문제를 깊이 음미해 보려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함부로 전쟁을 걸어 오고 있는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전쟁광기로 조선반도정세는 극도로 긴장해 지고 있으며 전쟁폭발이 시간을 다투며 림박해 지고 있다. 사태는 날로 험악해 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고도의 경각성과 긴장성을 가지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전쟁태세에 만전을 기할 때이다.

우리 인민은 노예적평화를 바라지 않으며 자주성이 짓밟히는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립장이다. 사생결단으로 침략자들과 최후결판을 짓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확고해 지고 있다.

우리는 배심이 든든하며 그 어떤 대적과 그 어떤 형태와 방식의 전쟁도 승리적으로 치를수 있는 전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위력과 전쟁방식앞에서 부쉬의 ≪악의 축≫론은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며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까마귀밥이 되고 말것이다.

20세기의 조선전쟁은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와 반제민족해방혁명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면 21세기의 조선전쟁은 미제의 멸망을 결정 짓게 만들고 조선의 통일번영과 세계자주화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을것이다.

부쉬는 침략과 전쟁선언인 ≪악의 축≫론을 집어 던져야 하며 세계를 전쟁의 불길속에 몰아 넣으려는 무분별한 광증을 걷어 치워야 한다. 이것이 그 자신과 미국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할수 있는 선택으로 된다.

공화국 창건 50돐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사업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 강좌 제172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14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화국 창건 50돐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87(1998)년 9월 9일에 공화국 창건 50돐을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따라 우리 인민은 영웅적으로 투쟁한 결과 공화국 창건 5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화국 창건 50돐 경축행사를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국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주체조선의 국력을 내외에 널리 과시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화국 창건 50돐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공화국 창건 50돐을 앞두고 첫 인구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주체조선의 국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공지구위성은 현대과학기술의 결정체이며 그 개발은 국력평가의 정수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나 인공위성보유를 소망하고 있지만 100프로 자체의 힘으로 개발하여 소유한 그런 나라는 몇 개밖에 안됩니다.

우리의 위성발사자들은 주체87(1998)년 8월 31일 12시 7분에 발사하여 4분 53초만에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후 그 개발과 발사에 참가했던 과학집단에 친히 감사문을 보내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구지구위성의 성과적인 발사는 참으로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의 힘있는 과시로, 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우리 민족사에 특대사변으로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인공지구위성을 100프로 자체로 개발하여 단번발사에 성공한 것은 세계적인 인공위성보유국으로서 그 무엇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막강한 국력의 뚜렷한 과시였습니다.

이 경사로 해서 강성대국의 포성이 장엄하게 울리게 되였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전진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밝은 전도를 확신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는 ≪**김정일**지도자의 승리≫, ≪사회주의승리의 포성≫, 또 ≪세계를 들었다 놓은 뇌성≫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첫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가 가지는 의의는 또한 간고한 사회주의강행군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고 공화국 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낼 수 있게 되였다는데 있습니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는 우리 인민에게 악전고투하면서 꿋꿋이 지켜온 자주, 자립, 자위의 길이 천만번 정당하며 이 길로만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첫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으로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의의깊은 사변으로 되였다는데 있습니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로 우리 나라는 당당한 인공위성보유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였고 앞으로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담보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공화국 창건 50돐경축행사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성대히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든 행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만대에 빛내이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의 위력과 우리의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는 대정치축전으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특히 행사들을 통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빛내이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 **≪우리는 숭고한 도덕관을 가지고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도록 하셨습니다.

회의에서는 우선 사회주의헌법이 새롭게 수정보충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은 건국의 어버이시고 공화국의 첫 주석인 동시에 마지막 주석이라고 하시면서 주석제와 주석직함은 오직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히 남아있게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따라 헌법서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갈데 대하여 기재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님의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기 위한 충성의 법전으로,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집대성한 ≪**김일성**헌법≫으로 보충완성되게 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또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기구와 체계를 새롭게 내오고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했습니다.

국기정권기구가 새롭게 구성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정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혁명적인 국가기구체계가 정비됐습니다.

우리의 국가정치체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계승성이 있는 정치체제이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나갈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체제입니다.

이처럼 조국과 민족의 전도를 담보하는 만년대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사에서 커다란 역사적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우리는 숭고한 도덕관을 가지고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높이 발양시키자≫를 녹음으로 청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노선을 영원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조선≫으로 빛내이시려는 장군님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우리 공화국의 그 정치방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시정연설이 육성녹음으로 엄숙히 청취된 소식을 전해지자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화국 창건 50돐경축행사에 참석하였던 외국의 한 대표는 ≪참으로 놀랐다. 세상에 국가가 생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에서처럼 선대 국가수반의 시정연설이 그대로 국가정책으로 이어진 예는 없었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 조선 인민만이 펼칠 수 있는 경이적인 화폭이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는 선대 수령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의 건국업적을 만대에 빛내어 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정치도덕관이 과시된 회의였으며 우리 혁명과 국가의 혈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내인 그런 계승성있는 회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공화국 창건 50돐 경축열병식과 군중시위, 집단체조를 그 규모와 흐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셔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반영된 명실공히 수령님을 위한 열병식, 수령님의 건국업적을 칭송하는 군중시위, 집단체조로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해서 열병식은 맨앞에 길이 415센티미터로 너비 216센티미터인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기가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업적을 칭송하는 뜻을 담아 공화국기를 형상한 육해공군 군기들의 호위속에서 나가게 되였습니다.

또한 평양시 근로자들의 군중시위도 어버이 수령님의 건국업적을 칭송하며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기상이 잘 반영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체조 ≪영광 빛나는 **김일성**조선≫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강성대국건설의 새 역사를 빛내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최고예술의 대서사시적 화폭에 담아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화국 창건 50돐을 맞으며 전국연구토론회, 전국인민예술축전, 전국웅변대회, 경축공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특색있게 진행되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공화국 창건 50돐경축행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일심단결된 주체조선의 국력을 내외에 널리 과시한 대정치축전이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통일연대 4차 범국민 행동의 날

치욕적이고 비극적인 역사에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는 15일 탑골공원 앞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범국민 행동의 날≫ 행사를 갖고 부시방한반대와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주장했다.

강형구 조직국장의 사회로 오후 2시 20분경에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이천재 전국연합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장 문명하고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치욕적이고 비극적인 역사를 살아온 것에 대해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천재 공동의장은 부시방한을 규탄하면서 ≪국회도 대통령도 꿀먹은 벙어리≫

라고 한탄하며 ≪민족의 소중함을 알자≫ 고 호소했다.

이공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통일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미국의 침략역사를 자세히 열거한 뒤 ≪우리 민족은 미국의 탄압이 강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혼을 놓지 않고 통일운동을 해왔다≫ 고 강조했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에서 ≪26, 27, 28일 남녘 북녘 동포가 뜨겁게 만날 것≫ 이라고 소개하고 ≪우리민족끼리 만나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상렬 상임대표는 ≪남북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위기로 치달아≫ 왔다고 지적하고 ≪이땅에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북녘 사회를 담은 사진들과 작년 6.15 민족통일대토론회, 8.15 민족통일대축전 사진 등이 전시되었으며 ≪오만한 미국, 위험한 세계≫라는 제목의 홍보물과 ≪부시반대 1호≫라는 신문형태의 홍보물이 시민들에게 배부되었다.

서총련 학생들은 집회에서 ≪통일의 꽃을 피워≫라는 노래에 율동을 선보인가 하면, 부시방한 찬반여부를 묻는 투표함을 설치하여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학생들은 본 집회가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따로 모여 이재희(서부총련 의장) 학생의 사회로 시민 홍보 집회를 계속 진행했다.

한편 경찰은 주최측이 준비한 전쟁 반대 대형 홍보천이 성조기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압수하기 위해 두차례 행사장으로 진격해 참석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치관기자
통일뉴스 2002/02/15

여성계150인, 한미 정상회담에 평화요구

여성계 인사 150인이 20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한미 두 정상에게 평화요구를 밝혔다.

15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주최로 ≪한미정상회담에 밝히는 여성150인 평화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지은희 정대협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여성으로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을 반대한다≫ 며 ≪어떤 명분의 전쟁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한다≫ 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어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는 ≪부시방한 발표 이후 사회단체의 대응이 늦었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들이 한미 두 정상에게 바라는 여성평화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덧붙였다.

여성계 원로, 여성단체 대표, 여성학자 등 150인이 선언한 ≪한미정상회담에 밝히는 여성 150인 평화선언≫을 통해 주최측은 먼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감돌고 있는 전운을 씻어내고 평화를 도모하는 회담이 되길 희망한다≫ 고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를 밝혔다.

주최측은 이를 위해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의 전쟁전략과 일방주의를 관철시키는 불공평한 회담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노력을 성숙시키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길을 여는 획기적 회담이 될 것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부시미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테러전쟁을 확대시킬 의도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밝힐 것 △세계를 전쟁국면으로 몰고가는 부시행정부의 초강경 발언과 대외정책에 대한 반대 등 8가지 평화요구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주최측은 향후 계획에 대해 ≪18일로 예정된 시민사회단체 평화선언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국제시민사회네트워크와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국제문제화시킬 것≫ 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각계각층이 반대의 행동을 모아나기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요구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2/15

전쟁 반대 · 부시반대 평화메일 보내기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새해 들어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위험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적 선제 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시의 초강경 대 한반도 정책은
미국에겐 세계전략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한반도 민족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민족 존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에 우리는 전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정책을 단호히 반대하고
군사적 행동대신, 협상과 대화를 통해
그리고 남북의 화해, 협력 정책 지지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상생의 정신으로
한반도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범 국민적 평화쪽지 날리기 캠페인을 재개하려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를 위한 십자가의 길 행사

죽음을 막기위한 ≪십자가의 길≫

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인 문정현 신부는 미대사관까지의 십자가의 길 행진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15일 오후 1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는 카톨릭 평화지기 주최로 ≪부시방한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자회견과 십자가의 길≫이 진행됐다.

주최측은 원래 용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자유시민연대의 집회로 인해 국방부 앞에서 150여명의 신부,수녀,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개회사를 통해 문정현 신부는 ≪용산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의해 고착되었다≫며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죽음과 고통에서 해방될 때까지 끝까지 가자≫ 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카톨릭 평화지기 박창현 으뜸신부가 낭독한 ≪부시대통령 방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주최측은 ≪무력과 전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고 최근 미국정부의 ≪대테러전쟁≫과 ≪한반도 평화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주최측은 입장발표를 통해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 행정부 정책 반대 △한반도 전쟁기도 반대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자정 △김대중 정부의 자주적 외교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광화문 미대사관까지 ≪십자가의 길≫ 평화행진을 시작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고난에 부딪혔다. 경찰의 저지로 삼각지 역에서 행진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

이에 참가자들은 평화적인 종교행사를 탄압하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40여분간 기도와 노래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다 십자가의 길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시청으로 이동했다.

오후 3시경 시청 건너편에서 다시 진행된 십자가의 길은 또 다시 경찰의 저지에 막혔고, 주최측은 기도와 노래를 계속하다 조선일보사와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길을 대신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대사관 앞으로 1인 시위를 하러갔던 문정현 신부와 문규현 신부가 경찰에 의해 고착되면서 험난한 십자가의 길은 다시 시작됐다.

뒤이어 도착한 참가자들은 ≪신부님들을 풀어달라≫ 며 강하게 항의했고, 1시간 30분 가량 고착상태를 풀지않으려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3명의 연행자가 생기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한국통신 빌딩 앞에서 기도와 노래를 계속하며 시민들을 만났고, 결국 문규현 신부가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오후 5시경 험난했던 십자가의 길 행진은 모두 끝났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2/15

≪한반도에 평화를≫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15일 정오 미대사관 앞에서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미국대사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양비엔나 수녀(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정의평화 분과장)는 단호하게 이같이 말했다.

오는 19일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규탄 시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미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는 지난 6일부터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가 서경원 상임고문을 첫 주자로 시작했으며, 18일부터 부시대통령의 방한이 끝나는 21일까지는 민주노총, 전농, 전국연합 등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사순절이라서 금식중이라는 양비엔나 수녀의 1인 시위를 촬영하려하자 경찰들이 미대사관은 촬영금지 구역이라며 한때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다. 양 수녀에 이어 오후 1시 반부터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숙임 공동대표는 부시의 ≪악의 축≫에 대해 ≪이는 선제 공격 발언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굉장한 위기≫ 라며 ≪부시방한에 앞서 우리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미국의 F-15기 강매와 이북에 대한 태도, 우리를 전쟁대상으로 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 한다며 ≪정부에서 부시와의 회담시 민족불이익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협상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공동대표가 1인 시위를 시작하기 위해 미대사관 앞으로 가는 중에 경찰이 함께 온 회원을 제지하는 바람에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치관기자
통일뉴스 2002/02/15

7대종단, 부시 美대통령에 서한

7대종단 수장들이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과 관련, 부시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15일 주한 미 대사관에 전달했다.

7대종단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상임공동본부장 김철 천도교 교령)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7대종단 수장들의 이름으로 된 서한을 주한 미 대사관에 전달,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를 통해 방한하는 부시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단측은 서한 내용이 ≪최근 부시대통령의 대이북 강경발언과 정책 표출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부시대통령의 방한이 오히려 전통적인 한미 우호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용성기자
연합뉴스 2002/02/15

조선일보의 유별난 부시 짝사랑

최근 조선일보를 보면 세계는 보이지 않고 미국과 부시만 보인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부시 짝사랑≫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가 양식있는 언론이라면 최소한의 균형을 갖춰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세계의 다양한 시각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 부시의 국회 연두교서 이후 미국에 대해 들끓고 있는 유럽과 중동국가들의 비판은 적어도 조선일보 지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국내 최대부수 1등을 자부하는 조선일보의 정보와 논조 편향은 무엇 때문일까. 처음에는 조선일보가 한정된 네트워크로 인한 정보의 한계 때문에 다양한 세계의 여론과 언론을 접하지 못한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아심도 가졌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4일 조선일보 10면 하단에 보도된 ≪기독교, 이슬람국 화해 공동기구 설치하자≫ 기사이다. 이 기사는 유럽연합(EU)과 이슬람회의기구(OIC)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이스탄불 회담을 다룬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유럽국가중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 군사노선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프랑스의 통신사 AFP와 한국의 연합뉴스를 받아 게재했다고 크레디트를 달았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스탄불 회담에 참석한 각국 외무장관들 사이에 진지하고 심도있게 논의된 미국의 대테러전에 대한 비난은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반면 참석자들이 공동성명에서 ≪미국에서 발생한≪9·11테러≫를 ≪잔인한 테러행위≫라고 비난하고 테러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는 등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정당하다는 내용에만 초점을 맞췄다. 앞뒤 문맥은 모두 생략한 채 부시 행정부의 귀에 거슬리지 않을 성명내용만을 골라 보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스탄불 회담과 성명내용의 첨삭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합뉴스를 살펴보니 13일≪EU, 이슬람 외무장관 회의, 미 대테러전 비난≫이란 제목이 눈에 띈다. 이 기사는 부시에 의해≪악의 축≫으로 지칭된 이란과 이라크 외무장관의 미국 비판 발언 외에도 터키 그리스 스페인 등의 외무장관이≪관용이 대화의 기본≫이라며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의 여파가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간 문명충돌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발언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선일보의≪부시 짝사랑≫은 15일자 지면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1면 사이드 ≪북이 핵사찰 수용안하면 미, 경수로 건설 중단경고≫, 2면 ≪≪한미정상회담 결과 북에 설명 용의≫ 정부 특사파견엔 유보적≫, 3면 ≪≪이북 대량살상무기 해결 급선무≫ 정부, 미와 긴밀한 공조≫, 4면 ≪≪이 총재, 악의 축 발언동의≫ WP지 보도공방, 여 ≪방미 면담록 곧 공개하겠다≫ 야 ≪햇볕실패를 미·야에 화풀이≫ ≫ ≪정부 고위당국자 ≪부시방한때 대북 대화의지 재천명≫ ≫, 5면 ≪이부영 ≪**김정일** 위원장 올해 답방엔 반대≫ ≫, 11면 ≪부시 ≪후세인 축출위한 모든 방안 검토≫ 이라크 공격 강력 시사≫ ≪미학자 60명 ≪반테러전쟁지지≫≫ ≪≪이라크에 연대감≫ 오스트리아 극우파 하이더 발언 파문≫ 등.

9꼭지에 달하는 기사제목들만 봐도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 노선에 따라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데 한국 정부는 햇볕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편향된 시각이 드러난다. 기사내용이나 행간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봐도 부시에 대한 조선일보의 원사이드 러브는 여전하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세계의 여론이 나빠지자 이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오히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이북과 전쟁을 시작할 계획은 없다≫ 는 12일 미 상원발언, 8일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이북에 군사조치 배제방침 발언 등을 통해 대북 강경노선의 선회를 시도하는 중이다. ≪악의 축≫을 좇아가던 조선일보의 부시 짝사랑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면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주목된다.

이영태기자
프레시안 2002/02/15

부시, 한·중·일 순방에서 ≪왕따≫될듯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3국 순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에서 18일, 한국에서는 20일, 중국에서는 22일 각각 양국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 참석을 제외하면 부시 취임후 첫 아시아 방문이다.

부시외교는 선 무당이 사람잡는 꼴

지난해 2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외국에 나간 경험이 멕시코 등 한두 곳밖에 없을 정도로 부시대통령의 ≪해외여행 기피증≫은 유별나다.

이런 이유에서 부시 취임 당시부터 유럽 외교가 및 언론계에서는 ≪외교 경험은커녕 외국방문 경험조차 전무하다시피 한 부시에게 과연 세계 최강국의 다사다난한 외교를 펼칠 능력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는 불안감어린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취임직후 유럽을 찾은 부시는 환경, 에너지, 미사일 협상 등에서 독선적 미국패권주의 노선을 고집, 유럽으로부터 ≪아마추어적 독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요컨대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식의 냉소였다.

더욱이 유럽방문 당시 부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미 국무부 과장급들까지 대동해 국무부내로부터 ≪외교 아마추어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 우리들만 죽어날 판≫ 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아시아로 번진 부시의 아마추어 패권주의

부시의 아마추어적 패권주의는 최근 그의 ≪악의 축≫ 발언을 계기로 아시아로까지 확대됐다. 부시가 지난달 12일 아시아 3개국 순방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이렇지 않았다. 한·중·일 3국의 반응은 환영 분위기가 주류였다. 그러던 것이 보름여 뒤인 지난달 29일 국정연설에서 이북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문제의 ≪악의 축≫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늘해졌다. ≪마침내 부시가 사고를 쳤다≫는 식의 반응이었다.

일본, ≪악의 축 발언은 부시의 생각일뿐≫

일본은 9.11테러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때에는 ≪기회가 찬스≫라는 식으로 미국을 적극지지했다. 자위대를 파병하는가 하면 전쟁비용도 상당부분 부담했다. 이를 통해 군사대국화의 걸림돌을 상당부분 제거했다는 게 일본정부의 자평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례적으로 신중한 침묵으로 일관하던 고이즈미 준이치가 13일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이날 중의원 예결위원회에서 부시가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비판한 대목과 관련, ≪부시대통령의 생각일 뿐이다. 이북 등과 대화의 장을 닫지 않겠다≫ 고 말했다. 배경이 어떤 것이든, 부시는 일본방문에서 그다지 얻을 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역대 미 대통령중 가장 인기없는 방한될듯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식의 부시 발언은 진보·보수 진영 차원을 넘어서 한국민 대다수를 분노케 했다. 전쟁체험세대로 반공의식이 남다른 실향민 노인들조차 ≪부시가 그런 막말을 하니 남북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겠느냐≫ 며 부시를 공개성토할 정도다. ≪악의 축≫ 발언 직전에 미국을 방문해 미 고위층들로부터 이례적으로 ≪차기 대통령≫ 접대를 받았던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조차 시간이 흐를수록 부시 발언과 일정 거리를 두려 하고, 그동안 햇볕정책을 맹성토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여당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려 할 정도로 요즘 돌아가는 민심의 기류는 간단치 않다. 또한 6백여개 시민단체가 16일부터 20일까지 잇따른 대규모 연대집회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하버드 주한 미국대사가 연일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반(反)부시 분위기를 중화시키려 애쓰고, 파월 미 국무장관 역시 이북은 공격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것도 이같은 흉흉한 민심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매코맥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급기야 14일 부시가 방한시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부시는 그 대신 현재 미 방위산업체인 보잉사가 생존차원에서 판매를 희망해온 F-15K를 한국의 차세대전투기로 강매하는 선에서 ≪방한 전리품≫을 얻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시는 한국을 찾았던 역대 미국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없이 한국을 찾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내년 이후가 문제

이처럼 부시의 이번 한·중·일 3국 방문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부시가 이번 방문의 좌절을 계기로 공격적 대북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단지 시기를 연장하려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은 ≪악의 축≫ 3개국 가운데 이라크에 대한 전면적 공격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이북 등을 동시에 적으로 돌릴 여력은 없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만약 미국이 아프간전 승리에 이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쟁까지 성공한다면, 그 다음 과녁은 이북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삼엄한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에 만약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 햇볕정책이 소멸된다면 상황은 한층 험악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북의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 평화구축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악의 축≫ 발언에 더이상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박태견기자
프레시안 2002/02/15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 (1)

≪9월테제≫에 대한 해석 -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2001년 10월 19일

차례

글을 시작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글을 맺으며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은 민주강령에 의하여 규정된다. 지금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민주강령이 제기하는 민주주의의 성격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전략적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어떠한 성격의 민주주의인가?

남(한국)에서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을 한꺼번에 완수하면 더 없이 바람직하겠으나, 현 시기 친미예속적이고 반민주적인 집권세력과 민족민주전선 사이의 역량관계를 살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확정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그 전략적 과업은 민족민주전선이 설정하는 두 개의 연속적인 단계, 곧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될 것이다. 단계적 수행을 말할 때, 우리는 그 두 단계가 분절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속적인 두 단계란 일반 민주주의라는 낮은 단계와 민중 민주주의라는 높은 단계를 의미한다. 민중 민주주의를 북(조선)에서는 인민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해방 직후에 북(조선)에서 수행한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일반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의 두 단계를 넘어선 최고단계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인데, 이것은 현 시기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과업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다.

지난 1980년대까지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은 다른 나라의 민족민주전선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에서 제기된 민주주의의 개념을 단일한 내용으로 파악하면서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으로만 이해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변화·발전된 정세에 맞게 그 개념을 두 가지로 가려보면서 그 내용을 일반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민중 민주주의 이전의 선행단계로서 일반 민주주의를 설정한 까닭은 무엇인가?

전자본주의적 계급관계가 지배적이었던 지난 시기에는 민주강령을 실현하는 변혁의 과정을 구태여 두 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북(조선)의 경우,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강인하게 단련된 주체역량이 자기의 주위에 전체 근로대중의 민주변혁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었고, 바로 그러한 강력한 주체역량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1945년 직후의 전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개조·변혁하는 민중 민주주의 혁명을 급속도로 수행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북(조선)의 혁명역량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1970년대에는 마침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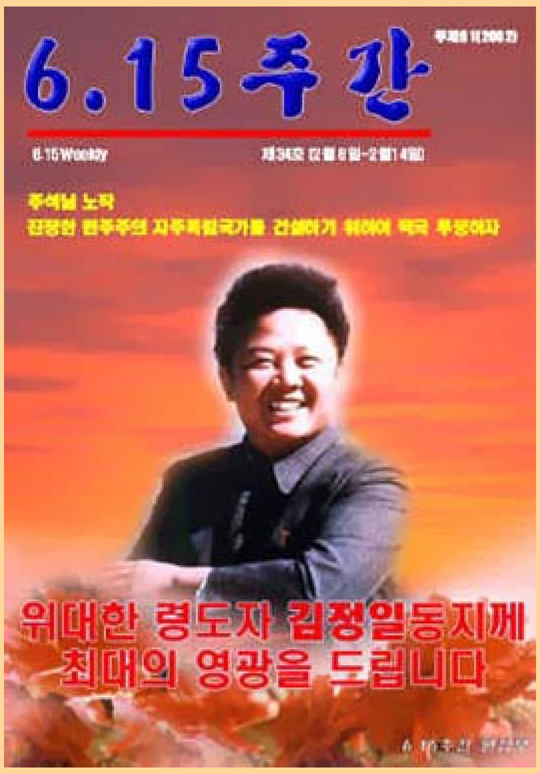
그런데 이에 비하여 1990년대 이후의 남(한국)사회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가 지배적이고 고착된 자본주의 사회로 변동하였을 뿐 아니라, 남(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개조·변혁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할

➡

광고

6.15주간

제34호(2/8~2/14)



3 주석님 노작
진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자

2.16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9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교시
10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약력
12 민족의 영광, 인류공동의 대경사
13 백두산과 김정일장군
16 김정일사상, 21세기를 밝혀
17 김정일정치의 기본특징
18 인덕정치는 애국, 애족의 정치
19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20 민중행복의 창조자
21 위인의 행복관
24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
26 선군에 대한 생각
27 2월의 대명절을 맞는 경향의 민심

특집 - 민족공조냐 외세공조냐
30 부시행정부, 잇따른 대북강경발언
31 이회창의 한미공조 넋두리
33 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배격하는 각계민중
34 부시방한반대투쟁과 청년학생들의 자세
35 반미운동의 새 전기를 마련하자
36 ≪동맹의 허상≫을 짚을 때다
38 ≪노리개≫감이 된 나라의 지도자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39 이북의 3대제의, 3대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올해를 6.15공동선언실천의 해로 빛내이자
40 전위당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거족적인 반부시반미항전에 총분기하자

6.15공동선언실현
46 남녘의 청년학생들에게

주한미군철수
47 ≪아파트 공사차량 앞에 드러누울 것≫

반통일세력단죄규탄
50 친일족속의 후예 이회창

국보법철폐 국정원해체
53 사법부, 범민련남측본부 간부들에게 실형 선고

민중연대
60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강화≫ 재확인
61 진보정당 운동 주체적으로 나선다

62 대담
미국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방해말라

연단
63 선군정치의 뿌리
64 노동자가 앞장에 나섰다

주체역량(민족민주전선역량)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민주강령을 실현하는 변혁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이 당면해서 수행해야 할 민주강령의 전략적 과업은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 곧 일반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물론 일반 민주주의의 실현은 한층 더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 곧 민중 민주주의에 앞선 선행단계로서, 또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체제를 민중 민주주의체제로 개조 · 변혁하는 중간과정으로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자명하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이 수행되는 경로는, 남(한국)에서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중 민주주의체제로 발전해나가는 경로인데, 그것은 남(한국) 근로대중의 사회정치적 요구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협소한 범위에서 광대한 범위로 실현되어 가는 민주주의 혁명의 전 과정이다.

두루 알려진 대로, 일반 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권리는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을 비롯한 기층민중만이 배타적으로 누리는 사회 · 정치적 권리가 아니다. 일반 민주주의는 소수의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외한 남(한국)의 근로대중 전체가 누리는 사회 ·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남(한국)에서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동력은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서 나온다. 남(한국)의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과 남(한국)의 근로대중 사이에 형성된 전선을 민족통일전선과 구별하여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부른다.

물론 근로대중의 민주변혁역량에서 나오는 동력도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반제자주역량에서 나오는 동력에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으로 구분된다. 민주변혁역량의 중심동력은 민족민주전선에 결합되어 그 전선을 주도하는 남(한국)의 기층민중(노동대중과 농민대중)에게서 나오고, 그것의 보조동력은 민족민주전선에 결합된 남(한국)의 중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 근로대중에게서 나온다.

일반 민주주의를 지향한 근로대중의 사회 · 정치적 요구는 기층민중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제약하거나 짓누르고 있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거하고 민주적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전체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반민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인 장치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는데, 이것은 군사파쇼정권이 사라진지 오래 된 오늘에도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파쇼억압체제의 유산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반 민주주의체제와 파쇼억압체제의 유산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이 일반 민주주의를 지향한 근로대중의 사회 · 정치적 요구는 당면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수행되고 그 투쟁에 집중된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남(한국)의 양대 기층민중인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은 물론 중간층까지 포함한 각계각층 근로대중의 광범위한 동력을 전선으로 집결시켜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고립 · 타격할 수 있는 투쟁이므로 민주주의 혁명을 촉발시킬 수 있는 도화선으로 된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가지는 의의는, 그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요구, 당면요구라는 데 있다.

남(한국)에서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단계는 자본가 계급의 권력을 청산하여 정부와 의회를 기층민중의 정부와 의회로 교체 · 장악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에서는 민족민주전선에 집결한 기층민중의 정치역량이 근로대중 전체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근로대중과 함께 대중적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민족민주전선에 집결한 기층민중의 정치역량이 근로대중과 함께 진보적 대중정당을 창건하고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투쟁을 전개하면서 집권을 위한 대안세력으로 장성하는 단계다.

그런데 지금 소자산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집권층 개혁세력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불안정한 기조 위에서, 매우 불철저하게, 그리고 파행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 정세의 기본성격은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 사이의 비타협적 투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이 정치권 안에서 벌이는 타협과 정쟁으로 혼탁하게 얼룩져 있다. 개혁정세의 불확실성은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취약한 역량을 지닌 집권층 개혁세력이 파행적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만일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역량이 강하다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1단계로 진입하여 짧은 기간 안에 완수하였을 것이며 연속하여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혁명의 1단계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자산계급에 기반을 둔 집권층 개혁세력이 민주주의혁명의 1단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체 · 장악해버렸다.

집권층 개혁세력의 개혁은 근로대중의 정치역량을 조직 · 동원할 수 없는 조건에서 집권세력 자체의 빈약한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친미예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역사적 전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역량의 결핍, 친미예속성에 의한 역사적 전망의 부재 때문에 집권층 개혁세력의 개혁은 결국 파탄되고 말 것이다. 지금 집권층 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개혁정세는 혼탁한 정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개혁정세의 파탄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역량은 아직 정세발전을 주도할 만큼 장성하지 못했다. 민족민주전선은 기층민중의 정치역량을 전선내부의 핵심역량으로 집결시켜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 근로대중을 자기편으로 돌려세우지 못하고 있다. 집권층 개혁세력의 개혁이 파탄의 길로 밀려나고 있는데도 민족민주전선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1단계로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주체적 조건의 미흡성 때문이다.

민족민주전선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층민중과 중간층을 망라하는 각계각층 근로대중의 민주변혁역량을 자기의 전선에 총집결 시켜야 하며, 그 힘으로 진보적 대중정당을 창건해야 한다. 이 정당은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 다시 말해서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과 두 단계의 민주주의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다.

(내일 계속됩니다)

조국통일3대헌장

연방국가창립방안(1)

주체사상 총서 5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할 데 대한 방안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제시된 남북연방제제안을 조성된 정세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통일기운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통일방안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연합하여 주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제형식의 민족통일정부를 세워 직접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연방제이다. 그러므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세워지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이 실현되게 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할 데 대한 방침이다.

연방제형식의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할 데 대한 조국통일방안은 본질적 특징은 민족문제, 민족공동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민족문제는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민족적 자주권은 민족국가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가진 민족이라야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배격할 수 있으며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자주적인 민족국가정권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 통일문제는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인 것만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통일적 민족국가를 세워야 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는 자주적인 통일적 민족국가형성의 유일하게 정확한 원칙과 방도, 연방국가의 성격과 기능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우리 민족 자신이 세우고 관리하는 주체적인 국가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그 어떤 국제기구의 의사에 따라 선택된 국가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염원과 의사에 따라 선택된 국가이며 그 어떤 외세의 힘에 의하여 운동하게 될 국가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이 직접 운영하게 될 국가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의 통일국가의 이름을 그대로 살리고 있으며 우리 민족 전체가 지향하는 정치이념인 민주주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를 이루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해외동포대표들로 구성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의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정책으로 될 것이며 전체 인민들은 민족의 주인, 국가의 주인으로서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떳떳하게 행사하게 될 것이고 국가는 전 민족의 이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진정한 민족국가로 될 것이다.

(내일 계속됩니다)